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buddhanews.com

☎구독신청 02)2004-8211~2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5월 30일(음력 4월 14일) 수요일 (주간) 제630호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불기 2551년 봉축법요식

“평화·안락 베풀어 중생 이롭게…”

조계사 1만 대중 참가…평양 광법사도 ‘봉행’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과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웃종교 지도자, 정계인사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조계사에서 봉행됐다.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2551년 전 진리의 법왕이 나투셨다. 길에서 나신 부처님은 고통 속에 허덕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길을 걸었고 길에서 가셨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진리의 길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다. 길은 걷는 자의 몫이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24일 서울 조계사와 평양 광법사를 비롯해 남북 전국 사찰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봉행된 법요식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특히 권오성 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홍창진 천주교 주교회의 신부, 김대선 원불교 문화사회부장, 김동환 천도교 교령 등 이웃종교인들도 참석해 부처님 오신날을 축하했다.

법요식에서 법전 스님은 “대립과 투쟁 속에 무쟁삼매(無諍三昧)를 이룬 이는 화해(和解)를 빚어내어 상생(相生)의 길을 열 것이며 탐욕 속에 들어 있는 이타(利他)의 덕성(德性)을 깨달은 이는 평화와 안락(安樂)을 베풀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지관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인류의 희망은 언제나 지혜와 자비로 서로를 비추는 충만한 광명의 세계이며, 상생하는 인류만이 그 빛을 획득할 수 있다”며 “공생과 화평을 실천하는 인류의 조용한 혁명이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종민 문화관광부장관이 대독한 봉축메시지에서 “불교는 우리 민족과 고락을 같이하며 찬란한 문화를 창조하고, 국난극복과 국가 발전에 큰 힘이 돼 줬다”며 “불교계가 선진한국을 열어가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김의정 중앙신도회장은 발원문을 통해 “편리함만을 쫓아 다른 생명을 괴롭히고, 자연을 파괴했던 이기심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 더불어 공생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법요식에서 용태영 변호사와 방송인 강부자씨, 김병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대신해 부인 배정희씨가 불자대상을 수상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금주 16면 발행

구독료 및 법보시 자동이체 안내 매월 자동이체 하시는 통장의 예금주가 (주)현대불교신문사에서 (주)에이치비엠씨로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하와이서 영어공부해요”
제4회 하와이 영어연수 · 문화체험캠프

현대불교신문사는 제4회 하와이 어린이 청소년 영어연수 및 문화체험캠프(http://hompy.buddhapia.com/homepy/hawaii)를 개최합니다.

- 참가대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기간: 7월 26일(목)~8월 14일(화)(19박 20일)
- 참가비: 280만원(여권, 비자수수료 별도)
- 참가신청: 3월 15일~ 5월 30일(참가비 5% 인상)
-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하와이 무량사
- 후원: (재) 보덕학회
- 참가문의: 박병용 팀장 (02)720-1868/ 010-6318-1976

- 주요 프로그램
–어학연수: 하와이주립대 영어교육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브라이언, 데니 선생님과 총 60시간 수준별 강의.
–문화체험: 폴리네시아민속촌 관람, 비숍박물관 관람 및 훌라쇼 체험, 하와이왕국 이올리나 궁전 탐방.
–역사체험: 사탕수수농장 방문, 진주만 탐방, 펀치볼 국립공원 참배.
–자연체험: 와이키키해변 수영, 다이아몬드 헤드 등반, 팔리바람산, 외이메하공원.
–문화특강: 매일 한 시간씩 영어와 한국어를 병행해 ‘국제화 시대 다양한 문화이해 강의’ 실시.

선무도
선체조/선요가/선호흡/선기공/선무술
선무도 전국지원
· 경주 총본원 골굴사 및 협회 054)744-1689, 054)742-1605 www.sunmudo.com
· 서울 : 종로 02)763-2980 서초 02)581-6521 방배 02)599-5554 송파 02)3431-4889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02)2260-3727
· 인천 032)541-6301 일산 031)924-5655
· 안산 031)475-2600 청주 043)285-1732
· 대구 053)525-0718 포항 054)275-6069
· 울산 052)276-6271 양산 055)382-5074
· 부산 : 보림 051)524-1600 정동 051)464-1380 금정 051)515-8323 서면 051)818-0166
국외지원
· U.S.A L.A 213-487-5377
· Canada Toronto 941-656-9642
· Austria Salzburg 06-215-5394
· France Toulouse 05-61-08-1010
(사)세계선무도협회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 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I Love Buddha / 진실한 마음

용정운(www.zentoo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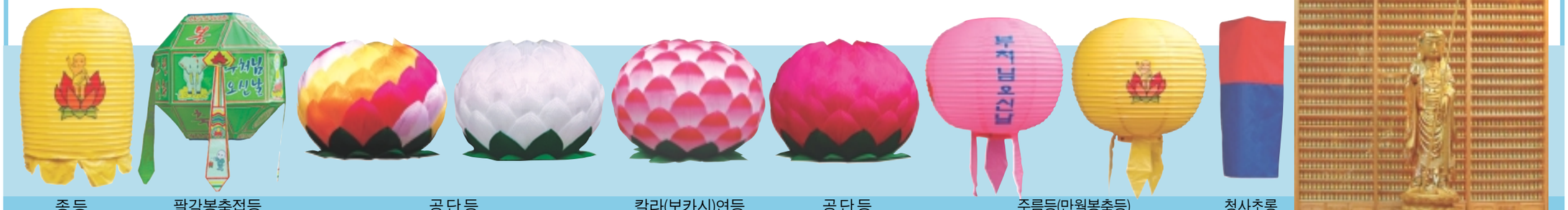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아름다운 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종 등 | 팔각봉축접등 | 공 단 등 | 칼라(보카시)연등 | 공 단 등 | 주름등(만월봉축등) | 청사초롱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부처님 자비 민들레 홀씨되어 '훨훨'

부산 무료급식소 '민들레 밥집' 불우이웃돕기 바자회 개최

"여기는 점 보는 곳이 아닙니다."

중년의 여성에게 두타 스님이 던진 말이었다. 오해도 많았고 경찰에게 연행되기도 여러 번. 부산 사직동과 칠산동에서 무료 급식소 민들레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두타 스님은 시청 지하철역에서 특별한 탁발수행을 하고 있다. (사진 위)

"혼자 사는 노인들 중에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자녀가 있지만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다"며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실제로 밥을 먹으러 올 수 없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민들레 밥집은 무료 급식 뿐 아니라 노인 치료비, 기름값, 생활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행을 실천하고 있는 장소이다. 거동조차 못하는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는 두타 스님은 "매달 8000인분의 쌀이 필요해 탁발과 자원봉사,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실정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며 "365일 쉬지 않고 밥집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웃의 소리가 더욱 커지기만 한다"고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민들레 밥집은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기 위해 '민들레 홀씨 나눔 장터'를 5월 18일 부산 시청 광장에서 개최했다. (사진 아래)

3개월 동안 모은 기증품들을 바자회에서 팔고 모은 수익금 전액은 민들레 밥집 개소와 무료급식에 쓰일 계획이다.

"자급자족을 하기 위해 '민들레 홀씨 나눔 장터'를 열어 지속적인 바자회를 개최하고 안정적인 수익금으로 더 많은 민들레 밥집을 만들겠다"는 두타 스님은 "기증품 관리, 판매봉사자들과 생활재활용 물품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스님은 "남에게 베풀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주어야 선행이 되며, 바자회를 통해 봉사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바자회는 실생활 속에서 남에게 베푸는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포교의 현장"이라고 말했다.

옷, 책, 주방용품, 신발, 가구 등 재활용품 기증으로 민들레 자비원을 후원할 수 있다. 051)558-2108 후원계좌 150031-52-137521 (농협 예금주 남창현)

하성미 기자

"내금강 성지순례 중단하라"

예비역장성불자 모임, 조계종 사업추진 반대 성명서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오는 6월부터 내금강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시각을 달리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예비역장성불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회(이하, 대불총)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금강산 고찰(古刹)을 성지 순례하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관광 수입은 김정일의 폭압 정치체제를 지탱시켜주고 핵폭탄과 미사일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호국 불교의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우리불교도들이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불총은 자체 홈페이지(nabuco.org)를 통해 발표한 성명서에서 "금강산 관광의 북한 측 계약자인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는 조선노동당 대남사업부서인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이라며 "지금은 불교도들이 북한 내금강 성지순례를 할 때가 아님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은 "성명서를 아직 보지 못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는 하겠지만 성지순례 프로그램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전통사찰 규제 완화 시급"

부산 범어사,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건축물 대장도 없고 적용 가능한 관련 법률이 없어서 우리가 안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못해 주는 실정입니다."

부산 범어사 경내 구조물 현황과 건축물에 관한 현황을 구청에 알려 건축대장정비 요청을 했을 당시 구청의 답변이다.

범어사(주지 대성)가 5월 22일 설법전에서 이재웅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범어사 사례를 중심'으로 전통사찰 규제 완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윤석진 교수(경성대학교 기업경영학과)는 "전통 사찰 중복규제로 인해 수행과 포교를 위한 공간 및 전통문화 체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사찰 경내 만이라도 건물의 증축 및 개축이 가능하도록 실질적인 해결 방안 모색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진 교수는 "범어사 산내 암자와 금정산 화재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 만성암, 원효암, 북문, 다비장에 이어 봉수대까지 소방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범어사 총무국장 범산 스님은 "범어사는 우리나라 교구본사 중 유일하게 대도시 안에 소재한 대형고찰"이라며 "범어사 및 금정산 일원을 시민공원, 시민사찰로 만들고 역사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개발할 뿐 아니라 불심의 수도 부산에 위치한 선찰대본산으로서 세계적인 선문화 터전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성미 기자

대한불교 선종 제2대 종정

지원당 도원 스님 입적



대한불교 선종 제2대 종정 지원당 도원 스님(사진)이 5월 20일 새벽 주석처인 경주 금강사에서 입적했다.

영결식은 대한불교 선종 장례위원회(위원장 정관, 총무원장) 주관으로 5월 22일 금강사에서 열렸으며, 49제 회향법회는 7월 7일 오전10시 금강사 대법당에서 봉행된다.

김원우 기자

서울 성북동 대성사 일본인이 일주문 불사



일본인이 서울 성북동 대성사 일주문 불사를 했다. (사진)

5월 24일 낙성식을 봉행한 대성사 일주문은 지난해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참석한 일본인 아루가와 마사하루씨가 법성종 종정 덕암 스님에게 일주문 건립을 발원해 완성됐다. 일주문은 올해 1월초 착공해 5개월 만에 건립됐다.

김원우 기자

분당에 불국사 포교원 석가사 개원

지역 어르신 위한 경로잔치 열어

분당지역에 불국사 포교원 석가사(주지 종상)가 문을 열고 지역포교에 나섰다. 석가사는 5월 20일 불사회향법회를 갖고 경로당 어르신과 독거노인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법회에서 "누구에게나 갖춰진 불성을 바로 보고, 성불할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생활할 때 성불의 소중한 인연이 자라게 된다"며 석가사가 지역 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길 당부했다.

석가사 주지 종상 스님은 "월산 대종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진행한 불사가 완공돼 감개가 무량하며 불사에 음양으로 공덕을 베푼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며 "석가사는 도심 포교와 전법 수행 도량으로 경전 공부와 참선 수행을 중심으로 알차게 신행하는 도량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향법회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학장 덕민, 동국대 교수 보광 스님 등과 고흥길 · 임태희 등 국회의원, 이수영 성남시의회의장, 김인규 성남시공무원불자회장 등 지역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불국사 · 청계사 · 석가사 신도 500여 명이 동참했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pia.com



태고종 전북교구 스님들이 공양미를 부안군에 전달하고 있다.

작은 정성 모아 큰 이웃사랑

태고종 전북교구, 공양미 100가마 모아 부안군에 전달

태고종 전북교구 종무원(종무원장 법운)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5월 18일 교구 산하 200여 사암에서 십시일반으로 모은 공양미 100가마를 부안군에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전북교구 종무원장 법운 스님은 "오늘 전달된 백미에는 태고종 전북교구 산하 200여 사찰 종도들이 어려운 이웃과 마음을 함께 나누려는 보살도 정신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백용사 수종(前 태고종 총무원 부원장), 종무원장 법운, 규정국장 진성 스님 등 교구 국장스님들과 유영렬 부안부군수 및 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바로 잡습니다

본지 629호 A5면 특별기고 제목 '부처님오신날과 Budda's birthday'를 '부처님오신날과 Buddha's Birthday'로 바로 잡습니다. B4면 보원 스님 관련기사 중간제목의 '찬치상'은 '잔칫상'으로 바로 잡습니다.

불교산악인회 창립 10주년 법회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연합회장 양춘동)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아 6월 10일 부산 범어사에서 제10차 '대한불교전국산악인 전진대회'를 개최한다.

전진대회는 오전 9시부터 금정산 산행과 쓰레기 줍기를 시작으로, 오후 2시에 법회를 봉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의 법문과 무분별한 자연 환경 훼손을 막자는 성명 발표도 이어진다.

전국불교산악인연합회는 1997년 창립한 단체로, 현재 1만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02)735-0408

여수령 기자

서울 열린선원 개원 2주년 조상님 합동천도대제 봉행

저자거리 포교원인 서울 열린선원(원장 법현)은 6월 3일 오전 10시 30분 개원2주년 기념 조상님 합동천도대재를 봉행한다.

이날 천도재는 원장 법현 스님이 직접 제작한 〈한글법요집〉으로 신도들이 직접 천도의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또 오후 2시에는 2주년 기념의식을 봉행하고, 2년 동안 행사 때마다 걸었던 현수막을 전시해 행사의 진행방향을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저자거리 수행도량 열린선원 불사안내

저자거리 수행도량을 표방하며 2005년 6월 5일 개원한 저희 열린선원에서는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불사를 짓고자 하오니 인연있는 불자님들께서 수희동참하여 성불교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개원 2주년 기념 법회 및 조상님 합동 천도대재
- 날 짜 : 6월3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4시
- 제1부: 합동천도대재(한글법요로 신도님과 직접 봉행)
- 위패봉안비 : 자율보시
- 제2부 : 2주년 기념법회(공양 후 오후2시부터)
- 제3부 : 축하연

◆정기법회
- 새벽예불 : 새벽5시(주택가이므로)
- 가족법회 : 매월 첫 일요일(일반가족)
  매월 셋째 일요일(중앙대학교 불교학생 동문 가족)
- 지회(蓮池會) : 열린불교 아카데미
- 동문법회 = 경전강독 및 느낌 나누기 : 매주 토요일 오후 1시30분 ~ 3시

◆제 7기 열린불교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교육내용 부처님의 생애,불교의 세계관과 사찰의 구조,불교의 기초예절과 예불 불교의 수행 이론 및 실제(구차제정,37조도품,사마타,위빠사나,간화선 등) 1박 2일의 템플스테이와 3귀5계 수계 후 신행단체인 연지회 가입
- 개강일시 : 6월 16일(토) 오후 4시
- 교육기간 : 6월 16일 ~ 9월 2일
- 교 육 비 : 무료

◆가족 원불(願佛)봉안 안내

가족의 수명장수와 소원 성취를 기원하는 원불을 모십니다.
- 1인 1불을 원칙으로 하되 가족원불도 모심
  1부처님 모시는 비용 : 30만원
- 불사문의: 02-386-4755,4720 다음카페 :열린절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0-974553(열린선원)
국민은행 429501-01-266034(열린선원) 신한은행 436-01-029146(열린선원)

저자거리 수행도량 한국불교태고종 열린선원 원장 법현 합장


철재여래좌상

“절 아래는 마을이 없다”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⑭ 지리산 실상사


실상사 석등.


백일리.

평지 사찰 탓 절 보다 높은 곳 마을 위치
하천 하나 사이로 ‘이웃사촌’으로 살아
지리산 가까이 있어 야생동물 피해 심각

또 길을 잘못 들었다. 88고속도로에서 지리산 나들목으로 나가야 하는데, 습관처럼 남원 나들목으로 나간 것이다. 실상사에 갈 때마다 하는 실수다. 할 수 없이 험하기로 유명한 정령치를 넘는다. 길은 욕망을 나타내고, 그 욕망이 우리의 어머니산인 지리산의 속살 깊숙한 곳을 헤집어 놓은 곳이 정령치 길이다. 한 시간 가량을 긴장하며 운전을 하였더니, 실상사 앞에 이르러서는 기력이 다 빠진 느낌이다.

해탈교를 건너면, 돌장승 두 기가 양쪽으로 서 있다. 웃는 모습이 따스하고 평화롭다. 장승들 뒤로 펼쳐진 들에는 푸름이 짙어가는 녹음이 펼쳐진다. 산이라고는 하지만, 평지에 가까운 낮은 산이 실상사 뒤를 받쳐준다. 농로를 걷듯 평평한 길을 걷는다. 산 깊은 곳에서 나는 갖은 약초를 파는 노상이 몇 군데 있다. 오가피, 더덕은 물론이요. 겨우살이 썰어 놓는 것까지 판다.

9산 선문의 하나인 실상사이지만, 현재의 규모는 크지 않다. 실상사는 신라 흥덕왕 3년(828년) 홍척증각 대사가 창건한 뒤 수철 스님과 편운 스님을 거치며 사세가 크게 확장되었다. 이후 여러 차례 화재를 겪고 중창되었는데, 고종 20년(1883년) 방화에 의해 많은 것을 잃었다. 하지만 워낙 큰 고찰이었던 탓에 남아있는 문화재는 빼어난 작품들이다. 불국사 석가탑을 보수 공사할 때 상륜부의 모양을 본떠 했다는 삼층석탑을 비롯하여, 수철화상 능가보월탑을 비롯한 여러 기의 부도와 창건 때부터 있었다는 철재여래좌상 등이 그것이다. 철재여래좌상은 약사전에 자리하고 있는데,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만 땀을 흘린다하여 세간에 회자되기도 하였다. 보광전에서 바라본 석탑들과 석등의 모습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실상사는 평지 사찰인 탓에 절 아래에는 마을이 없다. 오히려 마을이 절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하천 하나를 사이로 마을과 절이 저마다의 세계를 이루고 있다. 절에서 나와 마을로 향한다. 백일리라는 마을에 들어선다.

“원래 이름은 통내라. 벤딧벵이에서 물이 내려와 큰 내로 들어가. 그래 물이 합쳐진다고 통내라.”

반장댁으로 불리는 신정자(65 · 남원 백일리)씨의 말이다. 마을 뒤편으로는 지리산이 이어지는데, 어지간한 높이까지는 밭이 개간되어 있다. 마을회관에는 할머니들만 하나 둘 몰려든다. 남자들은 다 일하러 갔다 한다.

“이 동네가 세 동네라. 저 우에 꼴짜기 가면 장자터가 있어. 부자 터라고. 신작로 뚫려가 나가서 오른짝으로 쬐게 틀어가면 있어.”

“이 동네만해서 팔십 가구 되는데, 세 간데 다 합치면 백가구가 넘어.”

임복달(81) 할머니와 신순남(67)씨가 연이어 나선다.

“감농이 직 아부지. 양씨라. 도갱이라. 양도갱이. 부전시님이라. 절에서 질 어른이라. 지금은 아들네들이 잘 살아. 손자도 있고 다 잘 되었어.”

임복달(81) 할머니는 오래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다.

“주지 밑에 집 지키는 강원이라. 쌀 그런 거. 세미가 들어가면 말을 땅에다 노면 떵그렁떵그렁 소리가 나. 궤도 어디 갔는지 몰라. 사다리 딛고 올라가고 그런 궤가 있었어. 쌀 담는 궤.”

묻지 않은 말이 잘도 이어진다. 아무리 절 자산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사다리를 딛고 올라갈만한 크기의 궤가 있었다는 것은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한국전쟁 이전에는 절의 자산이 대단하였는데, 난리가 난 후 많은 것들이 소실되었다는 것이다. 이야기는 이내 전쟁 때의 경험담으로 이어진다.

“막 총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웽웽웽웽 들리고, 이불 뒤집어쓰고 이어도 총소리가 들리고, 우리 동네 사람은 총소리가 나니, 부석으로 들어가고 솔뚜벙 속으로 들어가고 그랬제.”

“솔뚜벙은 내가 들러 썼는디.”

“전하고 비하면 이건 절도 아니라. 시방은 마이 없어졌어. 옛날에는 논도 많고 중도 많고, 논쇠로 만든 불기(절에서 쓰는 그릇)도 많고 그랬제.”

“이 제께 사람들이 돈 사러 가고 그랬어. 나무라도 해서 팔아가지고, 절로 쌀 사러 갔어. 쌀 팔러 간다 그랬어. 쌀 사러 간다는 말은 쌀 팔러 간다 그랬어.”

이 마을에서 태어나 아직껏 살고 있다는 임복달(80 · 백일리) 할머니의 말이다.

“옛날에는 간짓대로 아주아주 큰 기를 세웠어요. 근디 우리 동네 기가 제일 어른이라 글드라고. 농사져 놓고 두리(두레) 논매고, 그런 담에 남자들이 한꺼번에 논매고, 술 먹고 놀고 그랬제.”

두레에 관한 이야기다. 말끝에 논밭이 많아 농사들을 많이 짓느냐고 물었더니, 엉뚱한 대답이 들려온다.

“짐승 땜에 아무 것도 못해 묵어. 여기가 돼지(멧돼지)가 생기서 논이고 밭이고 암끗도 못해 묵어. 산돼지뿐이 아니라, 산까치 같은 것 많아서 못해 묵어.”

신정자(67)씨의 말이다. 지리산에 붙어 있는 마을이라, 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 또 여기저기서 말을 한다.

“지금 짐승이 와이리 많아요?” “키운께 그라제.” “짐승을 다 여기다 키우나 몰라. 청와대로 몰고가지.” “고구매도 숭구고, 옥수수도 숭구고, 감자도 숭구고 그라지만, 요새 못해 묵어. 옥수수도 다 묵어 번지고 그래.”

개발에 앞장선 자들은 막대한 자본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더욱 개발을 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힘없는 자들에게 온다. 지리산 골짜기에서 논밭이나 일구며 살았던 이들은, 막힌 도시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 또 희생을 강요당하는 것이다. 인간과 다른 동식물의 공생을 말하는 이는 많지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산문에 기대어 지리산을 바라보니, 인간이 작음을 비로소 알겠다. **실상사=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사)한생명 **임선주** 사무국장

숨 쉬는 것도 빌려온 것 ‘내것이란 욕심 버리세요’



현대 사회는 극심한 경쟁 심화로 인해 대화의 단절, 고립과 소외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모색하며 조용히 노력하고 있는 ‘인드라망생명공동체’의 임선주 사무국장(43 · 사진)을 만났다.

“인드라망은 느긋한 공동체죠.”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불교의 진리를 현대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현대문명은 욕망을 극대화함으로써 사회체제를 유지한다. 하지만 인간의 욕망은 만족을 모른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는 그 욕망을 더 부추긴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전쟁까지도 불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그늘에는 기아와 양극화라는 괴물이 자란다. 내가 살기 위해 너에게서 빼앗아야 하는 문화는 착취자와 피해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는 우주의 모든 것은 따로 있지 않다는 불교의 진리를 바탕으로, 근본 도량 실상사, 인드라망 생활협동조합, 중등 대안학교인 실상사 작은학교, 실상사 농장공동체, (사)한생명 등이 있다.

실상사를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종교를 강요하지 않는다.

“한 달에 한 번, 나눔 화합 수행의 날이 있어요. 사부대중이 모여 함께 등산도 하고, 수행도 하고, 서로 인사도 하고 하는 날이죠.”

임 국장은 귀농하려는 사람들에게 편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 다른 농촌과 다르게 경제력을 확보할 비결 같은 것도 없다. 숨 한 번 쉬는 것도 다른 곳에



염불선의 재천명 천일기도 법회

오늘
시방삼세의 모든 불보살님들이시여
시방삼세의 모든 화엄성중님들이시여
이 도량에 꼭 오셔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일체중생과 삼라만상의 본질은 본래로 아미타부처님의 일대행상一大行相인데 우리 중생들의 미혹한 업력으로 끊임없이 생사윤회하나니 석가세존께서는 이러한 우리 중생들을 고뇌에서 건져주시고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견성성불케 하도다.

금타 대화상께서는 부처님으로부터 혜능조사에 이르는 순선시대의 선법인 반야바라밀에 입각한 일상삼매一相三昧와 일행삼매一行三昧를 보리방편문菩提方便門으로 교시하였으며, 이 혜명을 승계하신 무주당 청화대종사께서는 본래의 마음자리를 회복하여 생사를 해탈하고, 참다운 행복과 대자유를 영원히 누리는 염불선念佛禪을 주창하시며 대가람인 청정도량 성륜사를 창건하시었나이다.

불보살님들이시여

그동안 부질없는 소견과 허망한 망상을 깊이깊이 사무치도록 참회하오며 이제야 원적에 드신 큰스님을 가슴 저미도록 그리워하며 염불선의 참 도량인 전남 곡성군 옥과면 옥과리 설령산 성륜사에서 새롭게 수행종지를 이어 받들고 집대성하여 재천명의 원력으로 천일기도를 봉행하고자 큰소리로 발원하나이다.

모든 불자님들이시여

우리 자신들의 업을 갈고 닦아 대 자유의 기틀을 다지고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 청정도량 성륜사를 다시금 큰스님의 법향으로 가득 넘쳐나도록 하기 위한 뜻 깊은 원력의 천일기도에 다함께 동참하시어 무궁한 부처님의 복락을 다함께 누리시기를 지심으로 기원하나이다.

◆ 입 재 : 2007년 5월 31일 (음 4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2010년 2월 24일 (음 1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 법 사 : 성륜사 주지 대만
◆ 동참금 : 매월 ₩ 33,000원정 (1000일간 매월 내시면 됩니다)
◆ 문 의 : 종무소 ☎ 061)363-0081, 7001~2
◆ 온라인 : 우체국 500702-01-000363 (예금주 : 성륜사)

大韓佛教 曹溪宗 설령산 성 륜 사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1> 마음과 경계를 다 잊어야

사람들은 좋고 아름다운 바깥 경계에 마음을 빼앗긴다. 예쁘게 화장하고 옷맵시를 멋있게 챙겨 외모를 가꾸며 남의 눈에 띄는 명품을 지니려는 요즈음 사람들의 모습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세상 돌아가는 형편이 그렇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내면의 뜰을 가꾸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는 마음의 향기가 배어 있어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아무리 멋져 보이는 경계라도 그 인연이 흩어지면 바깥 경계는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어서 집착할 게 없다. 집착할 것이 없으므로 허망한 바깥 경계를 버리고 마음을 챙기면서 실속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들을 수행자라고 부른다. <선가귀감> 71장에서 말한다.

凡夫取境 道人取心 心境兩忘 乃是眞法.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따르고 도를 닦는 사람들은 마음을 취하려고 하나, 마음과 경계 이 두 가지를 다함께 잊는 것이야말로 참된 법이다.

범부(凡夫)'는 보통 사람들을 말한다. 수행의 위치에서 말하면 아직 고집멸도(苦集滅道)의 진실에 대한 사제(四諦)의 이치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들은 무명 때문에 업을 짓고 그 과보를 받아야 하므로 자유롭지가 못하고 온갖 나쁜 길로 떨어지게 된다. 이 중생들은 육도(六道)에서 받는 과보에 따라 온갖 다른 모습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생(異生)이라 말하기도 한다. 아직 도(道)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다. 대승에서 분류할 때는 초지(初地) 이전을 범부라고 한다. 십주(十住) 십행(十行) 십회향(十迴向)의 삼현(三賢)을 내범(內凡)이라 하고 십신(十信)을 외범(外凡)이라 하는데, 외범 이하를 범부라고 한다. 또 성문연각 보살 부처님과 같은 네 분의 성현인 사성(四聖)은 육도윤회를 벗어나 있지만, 범부들은 육도에서 생사유전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합쳐서 여섯 종류의 범부인 육범(六凡)이라 말하기도 한다. 지옥 중생에서부터 시작하여 아귀, 축생, 수라, 인간, 하늘에 있는 중생들까지 다 포함한다. 이 범부들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만을 따른다.

'이승(二乘)'에서 '승(乘)'은 태워서 운반한다는 뜻이다. 중생들을 태우고 생사의 바다를 건너가는 내용을 두 종류로 나누기 때문에 이승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이승은 보는 관점에 따라 두 가지 내용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부처님이 한평생 가르치신 교법(敎法)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대승과 소승으로 나눈 것으로서, 성문 연각을 위하여 방편으로 부처님이 설하신 법을 소승이라 하고, 보살을 위하여 성불하는 법을 가르치신 것을 대승이라고 한다. 또 하나는 위에서 말한 소승을 분류하여 성문승과 연각승으로 나눈 것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고집멸도 사제의 이치에 힘입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성문승이라고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혼자 십이인연의 가르침을 관찰하여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연각승이라고 한다. 소승에 속하는 이 이승은 도를 닦는 사람들이지만 도를 닦는 과정에서 마음에 나타나는 좋은 경계에 집착하여 마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取境者 如鹿之趁空花也 取心者 如猿之捉水月也 境心雖殊 取病則一也 此合論凡夫二乘

눈앞에 보이는 경계를 취하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가 물인 줄 알고 좇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을 취하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바깥 경계와 안의 마음이 다를지라도 이것에 집착하면 병통이 되기는 마찬가지다. 여기에서는 범부와 이승의 병통을 함께 말해 놓았다.

바깥의 경계가 객관이라면 안의 마음은 주관이다. 그렇지만 눈앞에 보이는 바깥 경계는 온갖 인연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것이니 실체가 존재하지 않아 진실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도 범부들은 바깥 경계가 존재하는 줄 알고 그 경계에 집착한다. <능가경>에 이르기를 "먼 산의 아지랑이가 햇볕에 반사되어 흐르는 물처럼 보이자 목마른 사슴이 물로 알고 좇아가듯이, 범부가 눈앞에 보이는 육진(六塵)의 경계를 좇아가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하였다. 범부는 보이는 빛깔, 들리는 소리, 냄새와 맛 느낌 등의 경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여 그것에 집착하여 따라가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연 따라 이루어진 거짓 형상일 뿐이니 집착해서는 안 된다.

범부들은 바깥 경계가 존재하는 줄 알고 집착
마음도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것이니 허망할 뿐

내 안의 마음도 중생의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것이니 그 실체를 찾아보면 허공의 꽃과 같으니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승은 눈앞에 보이는 경계가 본디 허망한 것인 줄 알지만 마음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마음을 붙잡으려고 한다. <현우경(賢愚經)>에서 이르기를 "달 밝은 밤에 원숭이들이 우물에 비친 달그림자를 보고,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숭이 줄을 만들어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달을 붙잡으려고 하다가 마침내 허탕을 쳤다"라고 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저 물 속의 달과 같이 허망한 것인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여 온갖 욕심을 불러일으키니, 슬기로운 사람이라면 어찌 그런 허깨비 놀음에 속고 살겠는가?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天地尙空秦日月 山河不見漢君臣

푸른 하늘 넓은 땅에 진나라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고

드넓은 산하에서도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을 찾을 수 없네.

"푸른 하늘 넓은 땅에 진나라의 해와 달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 것은, 진나라 시대에는 해와 달도 진나라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진나라가 망하고 진나라의 해와 달도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보는 관점인 주관이 사라지면 보이는 관점인 객관도 사라진다는 뜻이니, 범부가 사라지면 범부의 경계도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다.

"드넓은 산하에서도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을 찾을 수 없네"라고 한 것은, 한나라 시대에는 드넓은 산하에서 한나라의 임금과 신하들이 주인 노릇을 하였는데, 한나라가 망해 없어지고 나니 그 나라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임금과 신하들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드넓은 산하로 비유한 마음이라는 것에도 주인 노릇을 하는 일정한 주체가 없다는 뜻이다. 중생의 시비 분별로 이루어진 마음 그 자체가 사라지면, 이 마음에서 주인 노릇을 하던 중생의 시비 분별도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다.

범부는 보이는 경계에 집착하고 이승은 마음에 집착하는데, 집착이 남아 있는 한 중생의 시비 분별은 끝없이 이어진다. 범부와 보이는 경계가 사라지고 이승과 집착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텅 빈 충만의 자리 그곳이 바로 우리 본연의 모습이며 부처님의 세상인 것이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사리(舍利)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에서 최근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특별전시돼 불자들을 만났다. 사리장엄구는 금동제사리외함, 금동방향사리함 등 부처님 진신사리를 직접 봉납하는 용기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사리장엄구는 사리구에 속한다. 사리와 함께 탑 속에 봉안되는 공양물을 통틀어 지칭하는 사리구에는 사리장엄구 외에도 공양소탑, 탑지(塔誌), 기타 공양물 등이 포함돼있다.

사리장엄구는 금 은 동 철 수정 등 당시 귀하고 값진 재질로 만들어졌다. 사리장엄구에는 불국토를 수호하는 사천왕을 비롯해 신중, 사자, 공양하는 스님, 보살들과 각종 문양이 화려하게 새겨져있다. 이러한 장식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숭모의 정과 존경심의 발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학계의 설이다.

우리나라 사리 전래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신라 진흥왕 10년(549년)에 중국 양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어 불사리를 가져왔으므로 왕이 백관과 함께 흥륜사에서 맞이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이다. 그 뒤 안홍이 진나라에 들어가서 법을 구하고 호승 비마라 등과 함께 귀국할 때 <능가경> <승만경>과 불사리를 가지고 귀국했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사리의 전래를 계기로 신라에서 사리신앙이 유행하기 시작했고, 그에 따라 불사리를 봉납하는 사리장치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부처님과 수행자들이 열반 후 화장하면 나오는 사리는 범어 Sarira를 음역한 말로 부처님 신골(身骨)을 지칭하는 말이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13>



대화법

상담이라고 하면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일방적으로 문제 해결법이나 조언, 충고,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현대 상담에서는 내담자가 하는 말과 행동에 선택적으로 주목하는 '경청'을 우선으로 여긴다. 이와 함께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을 잘 듣고 있다는 것을 시선이나 몸짓, 적절한 언어적 반응 등으로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상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언어적 반응법을 불교와 비교해본다.

첫 번째는 반영이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감정, 생각, 태도를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언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명료화다. 내담자의 말에 내포되어 있는 뜻을 내담자에게 명확하게 말해 주거나 분명하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직면이다.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감정에 대해서 주목하도록 상담자가 그에 대해 언급하거나 지적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해석이다. 내담자의 말과 행동 간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해 가설을 제시하는 것으로, 내담자로 하여금 과거의 생각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기의 행동과 내면세계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체이다. 즉, 반영→명료화→직면→해석의 순으로 내담자의 내면세계에 접근하는 깊이가 깊어진다.

부처님의 대화법은 부처님이 여러 가지 질문에 응답하던 네 가지 형식의 답인 사기답(四記答)으로 요약된다.

첫 번째는 일향기(一向記)다. 질문이 응답자의 생각과 합치하는 경우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이 적절할 경우에 그대로 긍정하거나, 절대 불변의 진리에 관한 질문일 경우 단정적으로 응답해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분별기(分別記)다. 질문자의 물음에 대하여 그것을 분해하고 시비를 분별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질문이 진리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먼저 분별하여 그에 알맞게 응답하거나, 조건에 따라 알맞게 구분하여 대답한다. 세 번째는 반문기(反問記)다. 묻는 이가 말한 것에 대해 바로 대답하지 않고 되물어 그 뜻을 분명하게 하거나 깨닫게 하는 대답 방법이다. 부처님은 질문자가 토론을 즐기려 할 때나 설득이 필요할 때 이 방법을 썼다. 네 번째는 무기(無記) 즉 침묵이다.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이나 대답할 일이 아닌 물음에 대해 대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질문이 이치에 합당하지 않고 아무런 쓸모도 없는 경우 대답하지 않고 침묵해 버리는 것이다.

현대 상담은 내담자 자체와 심리에
불교는 대화와 궁극적 진리에 초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 상담에서는 내담자 자체에, 불교에서는 질문자가 궁금해 하는 바에 대화의 주안점을 둔다는 차이가 있다. 현대 상담은 내담자의 '심리'에, 불교는 궁극적인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의룬당 의완 큰스님 법문집 출판기념 대법회

초청의 말씀
삼보에 귀의하옵고!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창종주이시며, 대한불교 종단 총연합회 회장이신 의룬당 의완 큰스님께서 회갑을 맞이하여 36년간의 포교활동을 기념하는 법문집 우리절 식구 이야기를 발간하여 그 축하의 법연을 마련 하였습니다.
공사 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시어 법연의 자리를 빛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회 안 내

◆일 시 : 불기 2551(2007)년 6월 11일 월요일 오전 11시
◆장 소 : 강릉시 경포대 현대호텔 대연회장 ☎ 033)351-2233
◆주 최 : 전국 의룬 문도회 ◆주 관 :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후 원 :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한국종교예술방송, 연합불교방송
◆사무소전화 : 서울 동월 ☎ 02)439-4570 / 대구 수암 ☎ 053)985-5768

초청인 문도회

◆고문 : 혜성(장로), 현공(종회의장), 해원, 해주(포교부장), 월주(강원원장), 법정(종회의원), 해광, 해천
◆문 장 : 혜원(종회부의장), ◆회 장 : 해법(총무부원장) ◆부회장 : 해석, 효상(종회의원)
◆감 사 : 서련(서울원장), 무애 ◆총 무 : 동월(종회사무국장)
◆문도대표 : 법성(대구원장), 지운(울산원장), 해승, 해각, 무해, 석암(사회국장), 산수(한국종교예술방송대표), 해동, 무일, 무공, 홍은, 자월, 명륜, 동훈, 지명,
◆손주상자 대표 : 불현(총무국장), 천광, 법수, 송연, 진상, 정식, 수덕, 수경 등 외 200여명 문도회 일동
◆추진위원장 : 수암(종단 총연합회 회장 사서실장) 합장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총본산 불탑사 (033-671-7751)

2007학년도 후기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신입생 모집

일반대학원

1. 모집과정 및 인원

과 정	학 과	전 공	모집인원
석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 (포교사회) -불교문화재학	8명
박사학위과정	불교학과	-불교학 -역경학 -실천불교학	6명

2. 지원자격
1) 국내 · 외 대학에서 학사/석사학위취득 예정자 또는 취득자
2) 법령에 의하여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3)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승려, 또는 대한불교 종단협의회에서 인정한 타 종단 승려
※ 타 전공자도 응시할 수 있음. 단, 입학 후 소정의 학부과정 개설과목(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함.

3. 전형일정
1) 원 서 교 부 : 2007. 6. 4(월) ~ 6.15(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2) 원 서 접 수 : 2007. 6. 11(월) ~ 6.15(금) 17:00까지 (대학원 교학부)
3) 전 형 일 : 2007. 6. 21(목) 13 : 00(박사과정) 14:00(석사과정)
4) 합격자 발표 : 2007. 6. 25(월)
5) 등 록 기 간 : 2007. 6. 27(수) ~ 7. 4(수)

4.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1) 장소 : 면접 고사실 - 대학본부 2층 세미나실
2) 시간 : 2007. 6. 21.(목) 13 : 00 (박사과정) 14 : 00 (석사과정)

5. 제출서류
1) 입학지원서 (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업 및 연구계획서 (본교 소정양식) 1부.
3)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 1부.
4) 대학/대학원 전학년 성적증명서 (백분율 성적 기재분) 1부.
5) 수계확인서 (3개월 이내) 1부. (최종수계일 기입 요)
6)해당 총무원장의 추천서.(타 종단 스님)
7) 주민등록등본 1부
8) 칼라사진 5매 제출(가사 수한 사진 3×4㎝)
※대학/대학원 졸업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스님은 합격 후, 2007. 8. 28까지 학위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6. 입학원서대 및 전형료
1) 원서대 : 무료 2) 박사과정 50,000원/석사과정40,000원

7. 사정원칙
1) 입학원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에 허위 및 하자가 있는 자는 불합격 처리함.
2) 정당한 사유 없이 전형 미 응시자는 불합격 처리함.
※상기 사정원칙에 기재하지 않은 기타 사항은 입학 사정회에서 결정함.

8. 지원자 유의사항
1)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원서의 기재사항은 변경할 수 없음.
2)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재. (www.sangha.ac.kr)

9.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415-070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159-1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 교학부
• 전화 : 031)980-7864 (내선 : 7864)
FAX : 031)980-7863
• 특전 : 1) 조계종 소속 승려(구족계 수지자)는 장학금 혜택이 있음.
2) 각종 교내 · 외 장학금 지급
3) 전공별 대학원 연구실 제공

중 앙 승 가 대 학 교 대 학 원

죽음 조차 아름다운 곳



"길만 다를 뿐 종파간 갈등 없이 서로를 인정"
정작 깨달음에는 경계도 분별심도 없는 것을…

천장 볼 수 있는 동양의 알프스 '랑무스'

다음 날 오전 빵차를 타고 랑무스로 출발했다. 랑무스는 사천성과 감숙성의 경계에 걸쳐 자리잡은 자그마한 사찰 마을이다. 이곳에 온 서양인들은 동양의 알프스라 부르며 경치에 감탄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보다는 천장(天葬. 망자를 새의 먹이로 보시하는 티베트의 전통적인 장례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알려진 곳이기도 하다. 아무튼 이번 순례일정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랑무스라 하겠다.

랑무스는 전반적으로는 초원지대이지만 사찰 뒤켠 산자락에는 소나무가 무성히 자란다. 그 맞은 편에는 절벽산이 있는데 그 모양새가 꼭 사람 이빨 같다 하여 이빨산이라고 불린다. 아직 풀이 돋아나지도 않았는데도 전체적으로 파스텔톤의 색조가 느껴지는 곳이다. 태양이 내리쬐긴 하나 그 열기는 그리 뜨겁지가 않고 저 멀리 산정상에는 눈도 희끗희끗 남아있다.

사찰을 바라봤을 때, 동쪽은 감숙성 소재 사찰이고 서쪽은 사천성 소재 사찰이다. 랑무스 역사가 수 백년도 더 된 것을 감안하자면 예전에는 이러한 구분이 없었을진대, 아무튼 지역구분에 따라 사찰도 두 군데로 분리되어 있고, 일주문도 따로 있다. 상점에서 만난 잠쵸스님의 안내로 감숙성 쪽 사찰의 경내를 방문했다. 법당 안은 전형적인 티베트 사찰의 모습으로 중앙의 큰스님 자리를 중심으로 고승의 순서로 자리하여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방석이 일렬로 배치되어 있고, 앞에는 연화생보살과 아미타불, 관음보살 등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위쪽의 법당에는 역대 랑무스 주지스님의 등신상이 모셔져 있으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법당에는 부처님의 불상을 모셔놨는데 정작 불상을 볼 수 없도록 문을 설치해놓고 잠가 놓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불상의 몸에서 성수가 흘러 나오는데, 이를 보고 외국인들이나 특히 타 종교인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 주지스님이 아예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랑무스는 겔룩파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으로 닉마파와 비교하자면 수행의 방식이 좀더 집단적이고 체계적이다. 겔룩파 스님들은 한 명의 큰스님의 암자에서 공동생활을 하며 경전공부와 수행을 한다. 암자를 지나다 보면 안에서 경을 읽는 소리가 들려 문을 살짝 열고 들여다 보니 아직 계를 받지 못한 어린 사미승을 스님이 노인과 손을 쥔 채 다정스럽게 담소를 나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나의 마음에선 이상한 광경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아뿔싸, 나는 두 사람의 외적 차별에 눈이 멀어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람이란 것을,
살면서 갈은 것을 지향하고 기원한다는 것을.
달을 가리키는데 손을 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리라.

비롯하여 비교적 단계가 높은 젊은 스님까지 한자리에서 소리 높여 경을 읽고 있는 것이 보인다. 닉마파와 겔룩파 등 각 종파간의 차이를 어찌 생각 하느냐는 질문에 잠쵸 스님도 "길만 다를 뿐 모두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자 방법이기에 전혀 종파간의 갈등이 없고 서로를 인정한다"고 한다. 같은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최선으로 택하여 가는 것이고, 다른 이는 다른 길을 최선으로 택하여 갈 뿐이라 말한다. 질문한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대답이다. 어느 종교 어느 종파에서든 깨달음을 추구하면서도 그 방법의 차별에 연연하여 반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작 깨달음에는 경계선도 분별심도 없는 것이다.

다음날 거리에서 목격한 현장은 자신도 모르게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헛된 분별심을 완전히 부숴버리기에 충분했다. 이 자그마한 도시에는 하얀 모자에 청색 옷을 즐겨 입는 회족들이 함께 마을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한 켠에 무슬림 사원도 뾰족한 탑을 높이 세워 멋들어지게 지어져 있다. 붉은 승복을 차려입은 한 티베트 스님이 전화를 걸면서 하얀 빵모자에 청색 옷을 입은 한 회족 노인의 손을 꼬옥 쥐고 있는데 회족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다소곳하다. 전화를 마친 스님이 노인과 손을 쥔 채로 다정스럽게 담소를 나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자연스러운데, 나의 마음에선 이상한 광경이라는 신호를 보낸다. 아뿔싸, 나는 두 사람의 외적 차별에 눈이 멀어 보다 근본적인 진리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사람이란 것을, 그들이 이웃이란 것을, 그리고 그들이 살면서 같은 것을 지향하고 기원한다는 것을. 달을 가리키는데 손을 보고 있는 나의 어리석음을 꾸짖고 초발심으로 돌아가리라.

다음 날 오전 예불에 동참하면서 티베트 불교 특유의 경전공부 방법인 벤징(辯經, 티베트어로는 초라)을 볼 수 있었다. 11시 경이 되자 서서히 스님들이 모여들더니 예불을 드리고 나서 법당 앞 마당으로 나와 서열별로 모여 자리를 잡는다. 큰 스님이 먼저 시작을 알리는 고음을 길게 내면 스님들이 그에 응답하는 고음을 내고는 벤징을 시작한다. 한 사람이 일어나 한 명 내지 두 명을 상대로 손바닥을 치며 화두를 던지면 이에 상대방이 답을 한다. 손바닥을 치는 행위는 화두를 던지는 신호이며, 상대방에 대한 경종의 신호이며, 토론에 몰입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질문을 던지는 사람과 답하는 사람은 서로 간에 스승이자 제자가 되는 것으로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시험이자 동시에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의 갈구이기도 하다.

랑무스에는 천장터가 있다. 천장이란 말 그대로 하늘에 장례를 치루는 것인데, 실질적으로는 새들에게 인육을 보시하여 치루는 장례로 조장이라고도 한다. 아침에 천장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으나 도저히 현장을 참관할 마음이 나지 않아 오후가 되어 사찰 너머에 있는 천장터로 발길을 내딛었다. 한참을 굽이굽이 언덕길을 올라가니 저 너머로 오색천이 덮혀있는 천장터가 보인다. 장례식이 끝난 후여서 그런지 아무도 없고 양치기 청년만이 천장터를 지키고 있다. 앞쪽에는 타르초가 뒤덮여 망자의 왕생극락을 발원하고 곳곳에 죽은 자가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나 담요들이 널려 있다. 중앙에는 돌판이 있고 주위에 하얀 가루가 흩어져 있는데, 이 돌 위에서 죽은 자를 독수리들이 먹기 좋게 분해하고 뼈를 부수는 작업을 한다. 다음 생으로의 여정을 떠나기 전에 망자의 영혼이 독수리의 몸에 머물러 산자들의 땅을 굽어보지 않을까? 땅에 있는 자들 역시 하늘을 보며 망자에 대한 추억과

▶ 6면으로 계속


사람이와 같다고 해 이빨산이라고 부른다.


랑무스의 천장터.


마니차를 돌리다 합장인사하는 티베트 불자들.

황금 돼지 · 황금 달마도
부처님 오신날 특별 보급 안내

일봉스님이 자신있게 내놓은 황금돼지 작품과 황금달마도 작품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백일기도 회향과 함께 순금 24K와 경명주사 금분을 섞어 정성들여 그린 작품으로 소장가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옛부터 해와 돼지는 삼신태몽이라 하였으니, 집이나 사무실에 소장해 놓으시면 재물이 들어오고 재수대통, 만사형통 이룬다고 하였습니다.

◆ 작품구입처
경북 경주시 강동면 안개2리 939번지
관음사 일봉스님
전화 054)763-3110 / 휴대폰 011-508-3100
입금계좌
우체국 700443-02-056838 (예금주 하종렬)

※ 작품을 구입하시는 모든 불자님께 지갑소지용 **황금돼지 카드를 1장씩** 드립니다.


황금 돼지 1호


황금 돼지 2호


황금 달마도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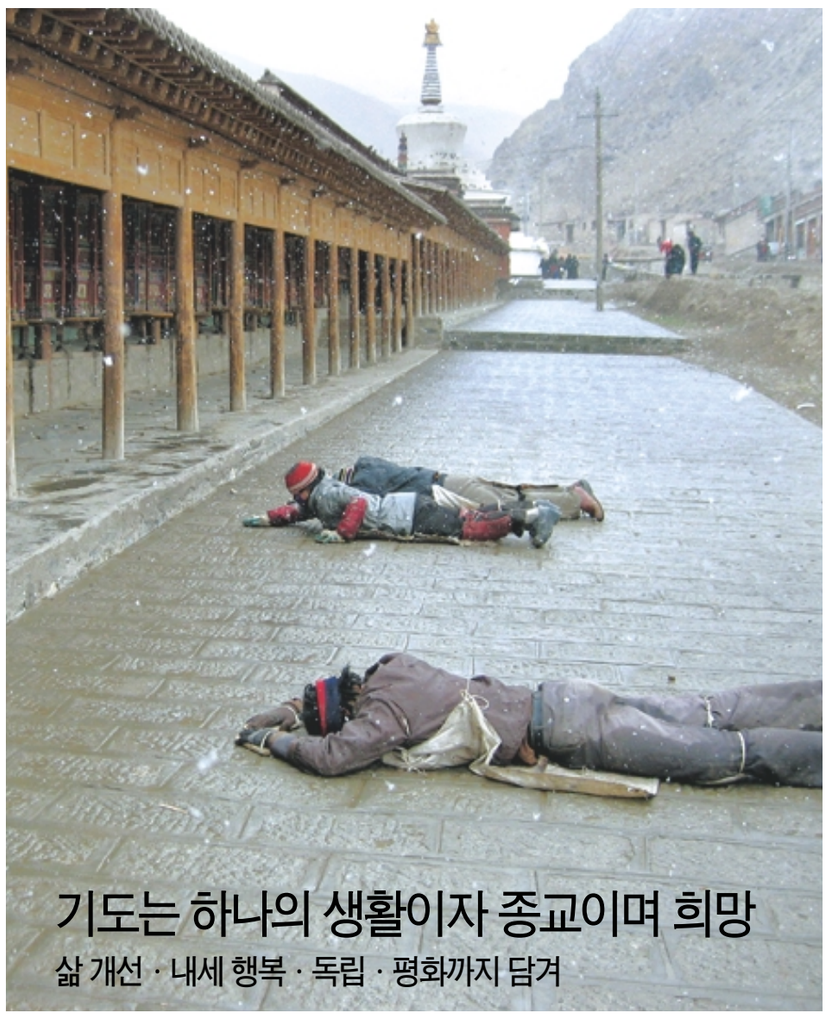

황금 달마도 2호

황금 돼지
1호 크기 830mm × 60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고급액자 표구
2호 크기 630mm × 58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고급액자 표구

황금 달마도
1호 크기 910mm × 530mm / 특별보시가 20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
2호 크기 670mm × 520mm / 특별보시가 15만원 / 원목 최고급 액자

오체투지 속에 키우는 불국토 염원


대경당 앞에서 예불을 기다리는 티베트 스님들.



기도는 하나의 생활이자 종교이며 희망
삶 개선 · 내세 행복 · 독립 · 평화까지 담겨

▶ 5면에서 계속

미련을 마지막으로 떨쳐버리리라. 결국 인간이 자연의 일부분이면서 자연은 순환에 거부하지 않음으로서 풍성해진다는 점에서, 천장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티베트인들은 죽음에 접해 내세를 기약함으로서 현세에 대해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는다.

500여 법당 3000여명 수행 '리틀 티베트'

랑무스를 떠나 3시간 여 만에 샤허에 도달했다. 샤허는 리틀 티베트라 불릴 정도로 아직 때 묻지 않은 티베트 불교의 모습이 남아 있다. 사실 라싸는 중국정부의 통제와 관광 사업에 의해 티베트 고유의 문화와 맛을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이며 달라이라마도 이미 포탈라 궁을 떠난 지 오래 전이다. 때문에 진정한 티베트 불교와 문화를 맛보고자 하는 이들은 티베트 동부 지역을 찾는데 우리가 여행한 경로와 여기 샤허가 바로 그런 곳이다.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큰 도로를 따라 위로 올라가다 보면 길 끝자락에 거대한 사원 라브랑스가 마니차와 백탑을 필두로 해서 모습을 드러낸다. 라브랑스에는 크고 작은 법당을 포함해 500여 개의 암자와 토굴이 모여 있으며 이곳에서 3000여명의 스님들이 함께 수행을 하고 있다. 병원에서 학교까지 웬만한 건물은 다 들어서 있어 스님들과 순례온 불자들이 사원내에서 필요한 것을 마련할 수 가 있다. 이곳에서는 정월부터 기나긴 축제에 돌입하는데, 코스를 역으로 밟는 바람에 아쉽게도 축제가 끝난 이후에 도착하고 말았다. 동행한 오선생은 2년 전에 이곳을 방문한 바 있는데, 축제기간에는 전국에서 불자들이 순례를 오기 때문에 그 넓은 사원이 사람들로 들끓으며, 예불과 성수를 뿌리는 의식, 승무와 행렬 등 다양한 행사가 벌어진다고 한다. 탈이나 가면을 얼굴에 쓰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추는 승무는 그 몸짓 자체가 조용하면서도 강렬한 정중동의 사위로 부처님의 말씀을 설파하는 듯 하다는데, 승무에 대한 관심이 많은 나로서는 직접 참관하지 못해서 아쉬울 뿐이다.

다음날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기어이 4월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렸다.
눈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땅에 낮춰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이들...
문득 써다의 눈 내리는 밤에 불전에 앉아
그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스님의 모습이 겹쳐진다.
성과 속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먼 길을 찾아와서 힘들게 모은 쌈지돈을 꺼내어
아낌없이 시주하고 삼보에 몸을 숙여 한없는
불심을 표하는 불자들을 보며
어느 스님이 수행에 정진하지 않을 수 있으랴.

숙소를 잡고 라브랑스에 들어서니 입구에서부터 불자들이 줄을 지어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1000여개의 마니차를 돌리거나 탑을 돌면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들에게 기도는 하나의 생활이자 종교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그들이 기도하면서 기원하는 것은 현재 생활의 개선에서 시작하여, 내세의 행복, 깨달음, 티베트의 독립, 세계의 평화까지 다양하다. 그 어느 것이든 기도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도, 그 정성과 믿음을 생각하면 나 역시 언젠가는 그들의 기원이 모두 이루어지리라는 신념이 생긴다.

다음날 예불을 드리러 대경당을 방문했다. 주메이스님의 안내로 법당에 들어가 예불이 시작하길 기다리는데 경당 2층에서는 예불시간임을 알리는 부자를 불고 옥상에서는 한 스님이 간헐적으로 티베트 불교 특유의 쇳소리를 내며 예불을 알린다. 스님들이 하나 둘 모여서 대경당 앞마당에서 자리를 잡고 대기하더니 어느덧 예불 시간이 되었는지 모두 신을 벗고 법당 안에 드러선다. 스님들은 모두 검은색의 장화를 신는데 이렇게 같은 모양의 신들 속에서 나중에 어떻게 자신의 신발을 찾는지 신기하다. 여느 티베트 사찰과 마찬가지로 높은 단계의 스님 순으로 자리를 잡고 염불을 한다.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는 동안 불자들은 문 앞에서 끊임없이 절을 드리고 법당 한 가운데로 시주금을 경전이 적힌 종이에 싸서 던져준다. 이런 식으로 모인 시주금을 모아 스님들은 균등하게 배분을 하여 생활을 하는 것이다.

대경당에서 왼쪽으로 조금 더 가면 마당이 넓직한 법당이 나오는데 스님들이 부자 연습을 하고 있다. 4명이 각기 기다란 부자를 입에 물고 불어대는데, 틈만 나면 손수건으로 입을 닦아댄다. 가까이서 가보니 입술들이 모두 부르터 있는데 연습이 여간 힘든 게 아닌 모양이다. 과연, 부자 끝 나팔부분에 물이 흐른다 싶어 자세히 보니 침 속에 핏물이 흐르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 보기엔 태평하게 불어대는 것 같더니 실인즉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연습이다. 이들 중 한 명인 로쌍 스님이 우리더러 한족이냐고 묻길래 한국사람이라 했더니, 자기들은 한족을 싫어한단다. 중국이 탱크로 포격한 흔적이라며 마당 한쪽을 가리키는데 아직도 파괴된 채로 남아있는 건물의 잔재를 볼 수 있었다.

대경장 입구 오른 편에는 감숙성 불학원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서 공부하는 스님들은 쉽게 말하자면 지도자 양성 교육을 받는 셈인데, 감숙성의 각 사찰에서 시험을 통과한 젊은 스님들을 모아 각종 경전을 공부할 뿐 아니라, 컴퓨터를 비롯한 현대적인 교육도 시킨다고 한다. 원내에 학원을 홍보하는 사진이 붙었기에 혹시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학원이 아닌가 의구심이 들었는데, 이곳은 한족의 경우 입학 자체가 허용이 되지 않는단다. 티베트를 위해서는 권익 주장이나 삶의 질 향상, 불법의 포교를 위해서도 이러한 현대적인 교육이 유익하다 할 것이다. 어떤 이들은 서부가 개발되고 외부의 문화가 티베트에 침투함으로서 그들 고유의 문화나 생활상이 해체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간직해온 순수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사라지지 않을까, 또 그들의 불심이 오염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이는 사실 이기적인 관점으로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본다. 그들의 순수한 모습 뒤에 가려진 물질적 빈곤함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며, 중국으로부터 제한받고 있는 그들의 자유와 권익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생활이 윤택해진다 해서 불심이 무너질까? 티베트의 오랜 역사를 확인해 본다면 7세기 초 송첸캄포 이후로 그들은 군사적이고 정복적인 성향을 버리고 종교적, 사회적 위기가 올 때마다 스스로 개혁했는데 4대종파도 이런 위기의 순간에 개혁의 차원에서 하나씩 생겨난 것이다. 13세기에 몽골제국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도 오히려 몽골제국이 정신적으로 티베트불교에 교화되는 결과를 만들었으니, 중국이 지금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들 그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만큼 티베트의 영적 생명력은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다음날 오전부터 날씨가 흐리더니 기어이 4월임에도 불구하고 눈이 내렸다. 쏟아지는 눈때문에 잠시 숙소에 들렀다가 다시 사원으로 갔더니 불자들의 기원을 담은 마니차는 여전히 돌고 있었다. 그리고 휘날리는 눈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땅에 낮춰 오체투지를 하고 있는 이들... 문득 써다의 눈 내리는 밤에 불전에 앉아 그칠 줄 모르고 기도하는 스님의 모습이 겹쳐진다. 성과 속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는 순간이다. 먼 길을 찾아와서 힘들게 모은 쌈지돈을 꺼내어 아낌없이 시주하고 삼보에 몸을 숙여 한없는 불심을 표하는 불자들을 보며 어느 스님이 수행에 정진하지 않을 수 있으랴.

물론 모든 티베트인들이 불심이 깊은 것은 아니다. 성도의 무후사 뒤편 티베트 상가에 가보면 허연 얼굴에 심드렁한 표정으로 거니는 장족도 볼 수 있고, 절을 뛰쳐나와 오직 시주돈 모으기에 여념이 없어 아무에게나 손을 내밀며 떠도는 스님들도 보인다. 그러나 이런 일부의 모습들에 실망하고 그들을 비난하기에는 대부분의 티베트인들의 영적인 경건함과 순수함이 너무도 크다.

샤허에서 란조우행 버스에 오르면서 중국에서의 주요 순례는 끝이 난다. 새삼 뭔지 모를 그리움이 가슴을 적신다. 돌아보면 써다에서의 혹한에 떨고 홍원에서의 뜨거운 땡볕에 그을리고, 샤허에 이르기까지 고산증세로 숨도 제대로 쉬기 힘들어하면서 두 번 다시 오기 힘들겠다는 생각도 문득 문득 들었다. 지금도 여전히 홍원의 뜨거운 태양아래서 초롱초롱한 눈빛의 아이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한자 한자 새기고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 랑무스의 하늘엔 독수리가 유유히 비상하며 산자들을 굽어보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오체투지로 한없는 불심을 발현하고 있을 샤허의 생불들. 써다에 가는 길목에서 만난 삼보일배의 두 부처님은 지금쯤엔 집에 도착했을까? 정확히 무엇에 대한 그리움인지는 모르겠다. 란조우와 성도에 머물면서 다시금 복잡하고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의 생활과 그 속에서 무표정하게 거리를 거니는 수많은 사람들에 젖어들면서, 어느 골짜기 사찰에서 이제 막 도착했을 붉은 가사의 티베트 스님 두 분이 거리를 두리번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 그리움의 정체를 어렴풋이 느낄 뿐이다. ■ 동두천 중화사 주지

구담사 대한 불교조계종 www.gudamsa.org

망 태 아(낙태,유산)
49일 천도재

• 입재일 : 양력 2007년 6월 3일(일요일) • 회향일 : 양력 2007년 7월 22일(일요일)

망태아령은 낙태, 유산된 태아입니다. 엄마 · 아빠로 인해 태어나지 못한 생명입니다.
그 업보는 악연이 되어 부모는 많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은 엄마, 아빠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다음 생에 좋은 인연 맺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천도재와 공양을 올리어 망태아 영가가 삼도천을 건너게 해야 합니다.)

- 안 내 -

구담사는 최초로 태아영가를 위해
천도재 참회기도하는 도량입니다.

매년 3회 (양력 3월, 6월, 9월) 첫째 일요일 기도입재 합니다.

- 대학 입시수험생. 취업. 혼사. 사업, 등 태아천도재와 함께 생축기도 발원하오니 기도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기도 동참하신 분은 49일 회향 끝나고 구병시식을 해드립니다.
- 여름철이라 우유가 상해 변하니 유념하시길 하시길 바랍니다.
- 태아영가 위해 광명에 등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태아등 2만원)
- 3년봉안 위패비 보내주세요. (완불 하신분은 우편물 없고 핸드폰 연락)

◉ 구담사 버스안내
• 1호차 : 조계사 앞(7:00)☞[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1번 출구(7:10)☞길음역10번 출구(7:10)☞미아삼거리역1번 출구(7:20)☞수유역1번 출구(7:30)☞도봉산역(8:00)☞일동시내☞구담사
• 2호차 : [지하철7호선]태릉역5번 출구(7:20)☞노원역3번 출구(7:30)☞도봉산역(8:00)☞의정부터미널 앞(8:20)☞일동시내☞구담사
• 3호차 : [지하철3호선,7호선]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역 8번출구 신세계백화전앞(7:20)☞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일동시내☞구담사
• 4호차 : [지하철2호선]강변역 테크노마트앞(8:00)☞[지하철5호선]광나루역3번 출구 버스정거장(8:05)☞[1호선]구리역앞 GS백화점 육교밑(8:20)☞일동시내☞구담사
※ 버스 이용하실 분은 해당지역에 미리 나와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 구담사 홈 페이지에 영험담과 참회의 글 올려주세요.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구담사
농 협 225051-51-113712 구담사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 TEL : (031)533-2855, 2584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

알 림

大韓佛教 禪宗 二代 宗正 智圓堂 道圓큰스님 예하 입적
2007年 5月 20日 申時

◆ 주석처 : 경주 금강사에서 수행정진 중

臨終偈 (임종게)

圓覺天地 (원각천지) 無窮造化 (무궁조화)
解脫死滅 (해탈사멸) 靈歸靈界 (영귀영계)

남기시고 홀연히 입적에 드셨다.

대한불교 선종 문도 및 종도 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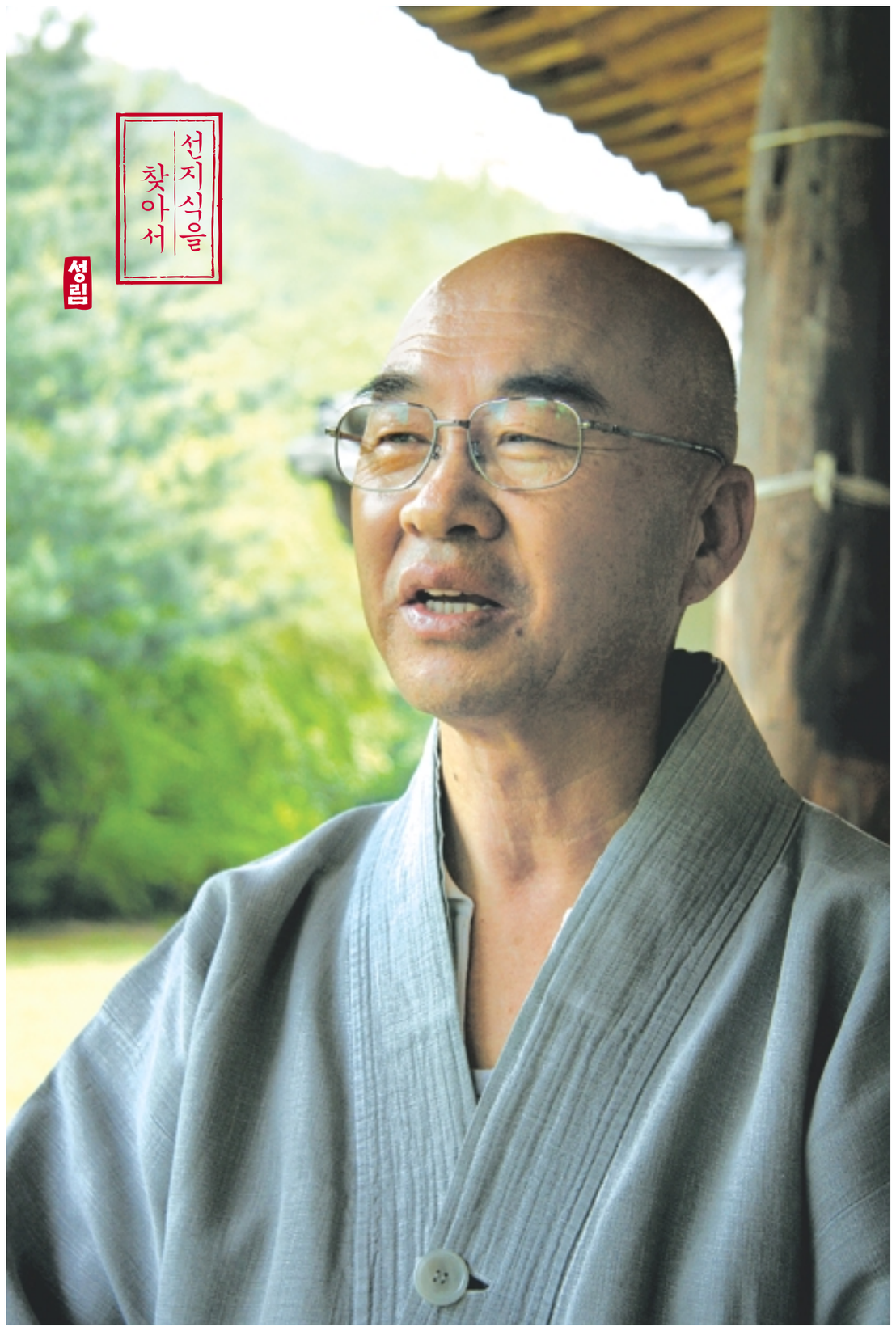
영결식 및 49제 회향안내

卍 영결식 ■ 일시 : 2007年 5月 22日 오전 9時

卍 49제 회향법회
■ 일시 : 2007年 7月 7日 오전10時 ■ 장소 : 경북 경주시 율동 벽도산 금강사 대법당

문도대표 상좌 자 혜
장례위원장 대한불교 선 종 총무원장 정 관 합장

한 번 웃어 주는것도 보시입니다



성림 스님 (통도사 한주)

생각 낸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생각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아서 조건이 맞으면 반드시 그 싹을 틔우고 자라나게 마련이다. 통도사 시탑전에 가면 남다른 씨앗을 뿌리고 그 발아를 기다리는 성림 스님을 만날 수 있다. 스님의 씨앗은 오다가다 일으키는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매일 아침 통도사 각 전각마다 참배하며 오랜 시간 가꾸어온 간절한 발원이다. 오늘과 내일이 이어지고, 현생과 내생이 이어지는 거대한 순환을 따라 익어가고 있는 스님의 발원이 막 피어나는 5월의 신록처럼 세상을 물들이는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

성림 스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출가했다. 1955년 홍경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니 50여년을 절에서 지낸 셈이다. 어린 시절에는 당대의 큰스님들을 시봉했다. 염불과 글씨에 능했던 은사 홍경 스님을 비롯, 효봉 스님, 구하 스님, 경봉 스님, 향곡 스님, 동산 스님, 성철 스님, 구산 스님 등 당대의 큰 스님을 시봉하며 공부했다.

이렇게 많은 큰스님들을 모시며 지냈지만 성림 스님이 마음속 깊이 수행자의 표상으로 간직하고 있는 스님은 정작 유명한 큰스님이 아니라 지리산 자락에서 이름 없이 살다간 노스님이다.

"1970년대 후반에 화엄사 봉천암 선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스님의 은사였습니다. 그 스님의 입적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바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세수가 77세였던 그 스님은 평생을 토굴에서 수행 했는데 일체의 약이나 죽을 거부하고 물만 드시며 가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마무리할 준비가 다 되셨다며 더운 물에 목욕을 하신 후 가사 장삼을 수하시고 기대 앉으셔서 유언을 남기고는 좌탈입망하셨죠. 또한 평생 모아온 듯, 50만원 정도의 돈을 내놓으시면서 화장비용으로 쓰고 남은 돈은 아랫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쌀을 사주라고 하시더군요.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는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이 <열반경>에 설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노스님은 미리 다비에 쓸 나무를 모아놓은 것은 물론, 죽으면 3시간 후 입은 그대로 곧바로 화장을 하고, 사리를 수습하거나 탑을 세우거나 비석을 세우지도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화장을 하는 동안 광명이 났고, 스님의 시신이 타고 난 곳을 살펴보니 전체가 수백과의 사리였다고 성림스님은 회고했다. 탑을 세우지 말라는 스님의 유언이 있었지만 사리를 계곡에 그대로 버릴 수가 없어 간단히 돌탑을 조성하고 그곳을 떠나왔다고 했다. 당시를 회고하며 성림 스님은 "수많은 스님들의 입적을 지켜봤지만 금강산에서 출가했다는 그 노스님을 잊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예전에는 스님들이 행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요즘처럼 말잔치로 그치질 않았어요. 큰스님들이 대중과 똑 같이 울력을 하고 백장청규를 그대로 실천했죠. 언행일치가 기본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사찰이나 스님들이 너무 사회의 흐름을 따르다 보니 잘못 흘러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님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한숨을 내쉬었다. 교육이 크게 잘못돼 있다고 했다. 공부만 하는 로봇을 만들어놓았지 인성 교육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계 역시 스님들이 포교를 잘못해서 똑똑한 불자들은 많은데 실천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이 전무합니다. 공부하는 로봇이 된 아이들만 있어요. 옆의 사람 상관없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 사찰도 사회와 똑 같이 흐르고 있어요. 자성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잘못 흘러가던 것이 쉽게 바로잡히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원력이 있고, 민족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주위를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스님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잡는 길이 부처님 가르침뿐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라고 하지 않습니까? 모두 더불어 같이 부처가 되자는 것입니다. 나만 부처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 보시, 방생 사상, 화쟁, 중도 사상 속에 인류를 구하고 우리나라를 구할 길이 있단 말입니다." 현실을 진단하고 나름의 해결책을 내놓으며 스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말도 빨라진다.

"육바라밀을 실천해야 합니다. 육바라밀의 첫째 덕목이 보시입니다. 보시는 곧 베푼다는 말입니다. 베풀어야 뭐든지 이루어집니다. 재물이든 마음이든 베풀어야 합니다. 웃음을 지어보이는 것도, 또 외롭고 슬픈 사람과 함께 슬퍼해주는 것도 다 보시입니다. 또 우리 집안만 닦고 쓸 것이 아니라, 대문 앞을 쓸고 우리 집 담밖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보시입니다. 집 바깥이 깨끗하면 지나는 사람이 즐거워집니다. 담 밖을 청소하는 것은 단순히 집 앞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실천해보십시오. 상없이 하는 보시는 은행이자의 백만배, 천만배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 중생구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베푸는 것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다. 염불, 강경, 주력, 참선 어느 것 하나라도 스스로의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따라 꾸준하게, 지극하게 열심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만이 아닌 모두가 부처 되어야
> 자비 중도 등엔 인류 구할 길 있어
> 집 밖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보시
> 일상생활 하면서도 정진하세요

"다른 종교는 믿어라, 안 믿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부처님 가르침대로 처신을 하면 부처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에 관계가 없습니다. 업에 따라 근기가 다르니 근기에 맞춰서 한 가지만 지극하게 하면 구경에는 성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법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만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관계가 없습니다. 믿든 안 믿든 실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이 강조되는 이유는 믿지 않으면 실천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님에게 수행법은 차별이 없다. 간화선이 부처님의 혈맥을 잇고 있다고 설명하면서도 간경, 염불, 주력, 참선 어느 것 하나라도 스스로에게 맞는 것을 지극하게 하기만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젊은 시절, 참선도 하고 경전 공부도 했던 스님이지만 요즘은 염불수행을 하고 있다.

"염불은 주위 사람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염불 삼매를 얻으면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염불 삼매에 들면 나와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내 부모형제와 이웃들의 문제도 생각 내는 대로 이루어줄 수가 있습니다. 삼매를 얻은 사람은 나만 잘되는 게 아니라 남도 더불어 잘 되도록 도와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염불은 말 그대로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졸음이 오고 잡생각이 나니까 소리를 내는 염불을 하기도 하지만 앉으나 서나 꾸준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매일 일상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 나가야 합니다."

스님의 발원은 아주 구체적이다. 각 전각에 들어서면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원력을 다시한번 확인하며 보시를 하고 절을 올린다.

"지금은 미국이 중심이지만 그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고들 합니다. 중국의 시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운기가 도래해도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힘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준비된 국민만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나갈 수 있듯, 수행자인 내가 다음 생에 한 나라의 황제가 되겠다는 원력을 세웠다면 그 원력이 성취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한한 복덕과 지혜를 쌓기 위해 다겁생동안 수행을 했던 부처님처럼 나의 다음 생은 불법을 홍포하는 것으로 보낼 것입니다. 그 한생도 눈 깜짝 사이일 뿐입니다."

얼마나 깊은 신심이면 한생 출가 수행자로서의 삶을 포기하려는 것일까? 부처님 가르침의 수승함을 얼마나 절감하였으면 그 가르침을 펴기 위한 저토록 구체적인 발원을 세울 수가 있을까? 스님의 원력이 문득 내 발걸음을 돌아보게 만든다. 갈지자걸음이었다. 이제 바르게 걷고 싶다. 가야 할 방향을 알고 그 길을 향해 똑바르게 걸어가고 싶다. 성림 스님처럼.

글 · 사진=천미희기자



성림 스님은 1942년 평양에서 태어나 양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스님은 1955년 사미계를 수지한 후 선암사 강사, 조계종 연수포교부장, 범어사 교무, 재무, 통도사 총무국장, 고운사 주지 직무대행, 부산시 북구 불교연합회 회장,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등의 소임을 두루 지냈다. 스님은 마음속에 세워놓은 원력에 집중된 일상을 산다. 나머지는 생략된다. 인도 9번, 중국 8번을 비롯 세계 70~80개국을 두루 다니며 경험을 쌓았다는 스님은 이제 불법홍포라는 거대한 원력에다 모든 것을 집중하고 나머지를 과감하게 생략한 단촐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대구 동화사에서는

6월 23일~24일 '제26차 전국불교청년대회'가 열린다. 청년불자의 힘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알리는 포교의 장을 마련하여 불국정토를 구현하는데 목적을 둔 이번 행사는 전야제와 본대회로 나눠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 및 행사 홈페이지(www.kyba.org)참고. (02)738-1920

서울 코엑스에서는

국가청소년위원회 주최로 '제3회 청소년 박람회'가 열린다. 기간은 6월 1일~3일까지이며 청소년체험관, 청소년단체 및 시설 프로그램, 청소년 보호 · 복지 · 폭력추방 활동 등의 종합적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무료입장. (02)2667-0874

인천 수봉문화회관에서는

6월 1일~9일 '제 25회 제물포 예술제'가 개최된다. 인천 문인들과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해 시민들에게 작품을 선보일 이번 예술제는 그림전, 사진전, 영화제, 문학작품 낭송회 등으로 꾸려진다. (032)873-5174

대전 물문화관에서는

'제1회 대청호 환경영화제'가 막을 연다. 6월 1일~3일 열릴 이 영화제에서는 '불편한 진실', '오늘이' 등의 다양한 환경영화가 실내와 실외 극장에서 계속 상영된다. (042)930-7340

울산 태화강 일원에서는

'제2회 태화강 물축제'가 개최된다. 기간은 6월 1일~3일이며 청소년 농구대회, 엄마아빠와 함께 하는 그림그리기 대회, 록페스티벌, 걷기 대회 등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마련될 예정이다. (052)229-2000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
로 연락주세요

"매일 매일 부처님 생신이었으면…"

어린이들이 본 '불교 행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불자들에게 제일 큰 잔치인 부처님오신날이 지나갔다. 지난주 내내 전국 사찰에서 준비한 형형색색의 연등이 거리를 수놓았다. 우리 어린이청소년 불자들의 마음도 연등처럼 밝게 빛나 부처님오신날이 더욱 뜻 깊었다. 각각의 절에서 마련한 신나는 행사들과 재미있는 볼거리가 가득한 문화마당은 그대로 즐거운 놀이터였다.

이제 행사는 끝났다. 하지만 내년에도 부처님오신날은 다시 올 것이다. 올해 연등행사와 제등행렬에 참여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이번 연등행사를 보며 느낀 점을 물었다. 모두가 즐거웠던 행사, 내년에는 더 소중하고 즐거운 추억 만들기를 기대하며 어린이청소년들의 바람을 한 번 들어보자.

글 · 사진=김강진 객원기자













■ 불자 아닌 친구들도 즐길 수 있도록 안내 필요

"저는 솔직히 성당 다니는데요, 절에 다니는 친구가 함께 가자 그래서 와봤어요. 이렇게 큰 행사가 도심에서 열리니 참 놀랍네요. 하지만 이 문화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인지 낯설어요. 거부감은 없지만 거리감이 있어요."
(박진이 · 16 · 서울 청파동)

"불교문화 해설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종교가 없는데, 불교에 대해 호기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마당 같은데 둘러보면 불교에 대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진짜 불교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유승아 · 16 · 서울 한남동)

■ 적극적 홍보 필요해요

"제 나이또래 친구들이 단체로 연등축제에 참여해 거리를 예쁘게 장식하는 것을 보니, 저도 참 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저희 집에서 가까운 절에서 이런 행사에 참여하면 좋겠는데, 없더라고요. 참 아쉬웠어요."
(전현경 · 15 · 서울 사당동)

"저도 사실 한 노래하거든요. 근데 청소년 노래마당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현장 신청도 받고 있었지만 대회 나가려면 그래도 연습을 해야죠. 다음 해에는 눈에 잘 띄는데 광고 좀 내주세요!"
(이승진 · 16 · 서울 가회동)

■ 볼거리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신났으면 좋겠어요. 전 만들기 싫어하는데 연꽃 만들기나 뭘 그리는 것 밖에 없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박은서 · 13 · 서울 잠원동)

"어딜 가나 비슷했어요. 다른 나라 불교 부스를 봐도 정작 그 나라 불교문화 보다는 뭘 파느라 정신이 없고요. 나라 별로 각기 다른 행사나 퍼포먼스 같은 것을 했으면 더 좋겠어요."
(김송이 · 16 · 서울 군자동)

■ 청소년 행사 좋은 경험이었어요

"작년에는 연등 행렬에 참여하느라 청소년 놀이축제를 잘 못 봤어요. 춤이랑 노래 잘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많다니, 부러워요."
(유준범 · 16 · 서울시 광장동)

"불교 행사 중에 청소년 행사가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종로에 놀러 나왔다 우연히 청소년 노래마당을 보게 되었는데, 애들 노래 진짜 잘하네요!"
(고현아 · 17 · 경기도 분당 수내동)

■ 가족들과 함께 신나는 하루를!

"연등행사는 처음 나왔어요. 엄마 아빠 동생이랑 얼굴에 그림도 그리고, 부처님께 소원도 빌었어요. 외국인들도 많아 신기해요."
(신현민 · 10 · 서울시 잠실본동)

"아침 일찍 절에 가는 건 너무 힘들었는데, 엄마 손잡고 거리에 나오니 사람도 많고 재밌어요. 엄마랑 함께 도자기도 만들었어요."
(이예림 · 11 · 서울시 재동)

■ 청소년을 위한 행사 좀 더 자주!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면 부활절 성탄절은 기본이고, 무슨 무슨 예배다 해서 청소년들이 문화제처럼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땐 참 부러워요. 우리도 이런 좋은 행사를 부처님오신날 말고 다른 때도 했으면 좋겠어요."
(유종현 · 15 · 서울시 구의동)

"이런 행사 자주자주 하면 안 돼요? 친구들에게 가끔 절에 같이 가자고 하면 따분해서 싫다고 해요. 근데 이런 행사들이 자주 있다면 제 친구들도 부담 없이 절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승희 · 17 · 서울 구로본동)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4,879자
- 320여 성씨별로 상생과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 오행의 조화
- 성씨별로 2000~3000 여개의 이름들
- 작명, 개명, 상호, 법명 사용가능함
- 이름대사전: 50,000 (오만원)

"신수비결"

2007 정해년의 운세

- 정해년의 직업 운
- 사업 운, 재물 운
- 이성과의 인연관계
- 학생의 성적 운, 진학 운, 등

적중률 90%가 넘는 신비의 비결로 완전 한글만 사용하여 생년월일만 알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권의 책으로 완성하였고, 휴대도 간편함.

- 신수비결: 30,000 (삼만원)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 본 원에서는 불교의식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인원을 제한하여 집중(3개월 속성) 개인지도 합니다.

◈ 불교의식을 모르는 초심자도 여법하게 집전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합니다. (스님포교사. 재가불자 법사교육)

◈ 교육과정

- 일상 상용반 : 도량석 조석종성
- 예 경 편 : 상단예불, 각단예불 (미타.명부.관음전 등)
- 불 공 편 : 삼보통청 중단퇴공 각단불공(관음.지장,신중청 등)
- 재 의 식 : 천도재 49재 예수재 점안의식 시다림

<바라춤>: 요잡바라, 관욕바라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법고무
<나비춤>: 사방요신, 다게 도량게 운심게

- 시식과정 : 관음시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 법사과정 : 경전을 문법과 전문적인 한문공부로 경전을 배웁니다.

◈ 개강일자 : 2007년 6월 5일
(범패반 : 화요일 오후 3시. 상용반 : 화요일 오후 5시)

◈ 강 의 일 : 매주 화(목)요일 오후 3~5시, 5~7시

◈ 신청방법 : 전화접수 및 신청서 접수

대한불교대학 범패 연구원 수림사

서울시 종로구(종로5가 3번 출구) 연건동 190-30

☎ 02)764-6060. 011-9769-8868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됩니다.

◈ 관재나 삼재에 시달리신분. 운이 없거나 재수가 없는분.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는분. 사주가 안좋으신 분들은 명당육氣방 가묘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강한 명당을 만들어 주면 새 운으로 변하여 하시는 일들이 잘되며 관운, 명예, 사업, 재물 운이 옵니다.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묘지터를 처방해 보십시오, 氣가 살아나면서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육氣방 051)865-9933

천도재 49재와 결들인 처방법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북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북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미주알고주알 : "미주알고주알 알아서 뭐하려고?" 라고 할 때 '미주알고주알'이 뭐지 하고 궁금해진 적 없나요?
미주알은 항문에 닿아 있는 창자의 끝 부분입니다. 남의 숨은 일까지 속속 캐려는 것이 마치 속 창자까지 살펴보려는 것 같아 '미주알고주알' 캐묻는다는 말이 생긴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고주알'은 '미주알'과 운을 맞추기 위하여 아무 뜻도 없이 덧붙인 말이란 것 기억해두세요.

살살이 : "잠바 주머니에 분명히 오천 원을 넣어 두었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느라 지웅이한테 잠바를 맡겼는데 갔다 와서 보니 돈이 없어졌잖아요."
"그렇다고 친구를 의심하면 되니? 살살이 찾아봤어?"
"이런, 주머니에 구멍이 났네?"
잠바의 살을 만져보시더니 뚫어진 구멍 틈으로 손을 넣어 힘겹게 오천원짜리 지폐를 꺼내셨습니다.
살은 두 다리의 사이나 두 물건 사이의 틈을 가리킵니다. '살살이'는 조금이라도 틈이 있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말이랍니다. 구석구석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건달 : 건달바는 음악의 신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신인데,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으며 허공을 날아다녔대요. 인도에서는 건달바를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는 악사나 배우를 가리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전에 노래나 배우 노릇하는 광대들을 천시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달바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그저 할 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개개인 갈등 '민족'이라는 이상으로 승화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이광수作 '무정'

춘원 이광수가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한 장편소설 <무정>은 한국 최초의 현대 소설로 평가받는 소설이지요. 고전소설과 신소설에서 엿보이던 구시대의 인간상이 이 작품 속에서는 근대적인 인간상으로 탈바꿈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애정 문제, 섬세한 심리 묘사, 개성적 인물의 창조, 구어체 사용 등으로 우리 소설 문학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지요. 청춘 남녀의 사랑을 줄기로 하면서도 근대적인 의식과 각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민족 계몽 소설로 읽히기도 해요. 당시 개화기 한국인들의 갈등을 '나'라는 개인보다는 '민족'이라는 이상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민족 계몽이라는 주제 의식을 부각시킨 거지요.

경성 학교 영어 교사 형식이 김 장로의 딸 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온 날, 뜻밖에도 옛 스승의 딸인 영채가 찾아온다. 어릴 적에 정혼한 사이나 다름없던 영채한테서 스승 박 진사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그런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사연을 듣는다. 영채가 돌아간 뒤, 형식은 영채와 결혼하겠다고 결심한다. 다음 날 형식은 학생들의 원성을 사고 있던 학감 배명식과 학생들의 대립을 중재하다가 배명식이 영채를 탐내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를 찾으러 갔다가 배명식에게 농락당하고 있는 영채를 구해 낸다. 이튿날 영채는 유서를 남기고 떠나고, 놀란 형식이 영채를 뒤쫓아 가지만 찾지 못한다. 영채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온 형식은 배 학감의 모함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김 장로의 딸 선형과 약혼한다. 한편 영채는 자살하러 가던 길에 활달한 신여성 병욱을 만나 마음을 바꾸게 된다. 병욱은 영채가 형식을 사모한다는 생각이 구도덕의 환각임을 역설하고, 영채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다. 병욱의 집에서 나날이 새로운 생활에 눈을 뜬 영채는 결국 병욱과 함께 유학을 가기로 한다. 형식과 선형, 영채와 병욱은 유학길에 부산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만나게 된다. 서로 갈등을 겪던 이들은 수해가 난 삼랑진에서 가난한 이들을 돕고, 수재민을 돕기 위한 자선 음악회를 열어 성황을 이룬다. 숙소로 돌아온 이들은 형식에 이끌려 외국에 가서 열심히 학문을 배워서 조선 민중을 계몽하고 교육할 것을 각오하고 앞날을 설계한다.

한국 최초의 현대 소설로 평가
근대적 의식 나타낸 계몽 소설

<무정>에서 가장 중심에 놓인 인물은 역시 형식이지요. 옛 스승의 딸로 어릴 적 정혼한 영채와, 개화한 기독교인 김 장로의 딸인 선형을 사이에 두고 고민하던 형식은, 여러 차례 갈등을 느끼지만 마침내 선형과 약혼을 하기에 이르잖아요. '자유연애'라는, 당대 사회의 풍속을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를 선보이고 있어요. 이는 근대적 의식 또는 자아의 각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영채가 보여주는 구시대 도덕을 버리고 선형을 택한 것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이 소설을 '현대 소설의 효시'로 끌어올리게 만든 게 아닐까요.

여러분도 <무정>에서처럼 교육과 계몽에 의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으리라고 보나요? 수재민을 위한 음악회를 마치고 여관에 돌아와서 선형과 영채, 병욱에게 조선을 위해 각자 할 일을 정하자고 외치는 형식의 모습은 선각자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지요.

이 작품은 봉건 도덕의식을 가진 박영채와 근대적 인간형인 이형식을 비롯한 여러 유형의 과도기적 인물을 설정하여 상호 갈등을 전개시킴으로서 전환기의 시대상과 가치관을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지요. 표면적으로는 근대 문명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면적으로는 전통 가치와 근대 가치의 충돌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여요. 전통적 여성 영채, 신여성 선형,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형식의 삼각관계는 단순한 애정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통 가치와 근대 가치의 대립이 함축되어 있지요. 이들의 갈등은 수재민을 위한 자선 음악회를 계기로 민족 현실에 눈뜨게 되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합의함으로써 해소되고 있어요.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청소년 성폭력, 어느 정도인가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하다보니 어렸을 때 성희롱(?) 같은 것을 당한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 성폭력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요. (ID:궁금궁금)

응답 학생의 34.4% 경험 '심각하죠'

한국청소년 상담원의 1996년도 연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의34.4%였으며, 그 중 '성적 언어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 비교적 경미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81.6%였으며, '성폭행' '강간미수' '강간' 등 심각한 성폭력을 당한 경우는 응답자의 18.4%로 이는 전체 응답자의 6.7%에 달했습니다.
심각한 성폭력을 경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의 가해자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경우 26.2%였으며, 다음은 '선후배나 친구'가 22.3%, 또한 '아버지'라고 응답한 경우도 18.0%나 되었습니다.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였는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자의 31%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상의' '부모님과 상의' '상담소에서 상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처럼 성폭력을 당한 학생들의 60% 정도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아무 대처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혹시 성폭력 경험이 있어서 고민이 되는 학생들이 있다면, 상담기관을 통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담원 선생님과 상담할 때 보다 구체적인 해결 방법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도 비밀을 보장하니 걱정 말고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작성: 우선유 · 감수: 소영원)

인도산 자수정 108 염주

평생 행운과 소원을 성취시키는 불멸의 염주

승리와 행운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불멸의 염주

영원히 살아 숨쉰다는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염주가 시판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수정은 몸에 지니고 있으면 화를 쫓고 행운과 소망하는것이 이루워지고 사업이 망하지 않는다는 전설이 있어 모자를 쓴 고대 인도 상인과 아라비아 상인들 이마에는 자수정을 꼭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자주본다. 인도산 자수정의 특징은 어떠한 세공을 해도 오염되지 않는 정화수를 주기적으로 주면 자란다는 보석으로 인도인들은 영원불멸의 보석이라고 하여 부처님 보석이라고도 한다. 인도산 천연자수정 108주염주는 인도에서 가공해 국내에서 조립한것으로 색상도 일정해 품위가 있다. 불멸의 보석으로 일컷는 자수정 염주는 지니고 있는것 만으로도 어떠한 역경이 와도 승리하고 성공한다는 오묘한 뜻이 있어 출시되자 선물로도 인기며 평생 사용할 예불법구로 불자는 물론 스님들까지도 신청하고 있다. 신광사에서는 불사기금 조성으로 구입 고객님의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소원성취와 사업번창을 위한 100일 특별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95,000원 **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자동차 사고 예방과 닥쳐올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용 금강저



사고 예방과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가격 38,000원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받아 달수 있다.
전화(02)741-4477

2007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재화막는 삼고금강저!



닥쳐올 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삼재란 음양오행에 의해 세상사는 동안 일정한 기간에 액란과 환란이 오는 시기를 말한다. 삼재에는 드는삼재, 묵는삼재, 나는삼재 각 1년씩 3년동안 수.화.풍으로 큰화를 당할수 있다는 뜻으로 불가에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의식으로 매년 입춘날 대부분 사찰에서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드린다. 삼재에는 나이에 따라 일반삼재가 있고 악삼재가 있다. 삼재가 든 사람들 중에는 하는일 마다 일이 안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제물손실이 계속되고 뜻하지 않는 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는 등 어려운 고통이 오지만 삼재라 하여 삼재가 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니다.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 중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다. 삼재를 완벽하게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닥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환란을 모면하게 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닥쳐올 화를 미리 막아주며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가로 5cm 폭 2cm로 가방 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된다. 삼재소멸 축원불공을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가격35,000원
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옴마니반메훔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정해년 새지갑으로 사업성공! 평생부자!



역경학적으로 일반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향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돌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옴마니반메훔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훔 복지갑은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 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길상보병과만사형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고급 소가죽에 金 · 銀나노 처리 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조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훔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중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마산지역
- 법당 : 30평
- 명부전 및 요사 : 300평
- 부지 : 1200평 외 1500평
- 가액 : 18억(급매가격임)으로 꼭 필요한분 직접상담요

- 위치 : 논산
- 법당 : 20평
- 요사 : 50평
- 임대 : 3000/25

- 위치 : 경남
- 법당 : 24평
- 요사 : 169평
- 부지 : 5600평
- 가액 : 19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 (표충비각 인근) 국도변 위치
- 대지 : 약 200평
- 요사채 60평(적벽 슬라브) 1동 초고급시설, 법당 20평 1동
- 태양열, 단독 지하수 완비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 일절
- 가액 : 2억1천만원 (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55)356-6777
010-5883-5005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 평수 : 28평
- 대지 : 1,100평
- 교통편리, 최고의 명당
- 가액 : 8억 7천만원

010-7795-8805

사 찰 안 내
서울 포교당
- 면적 : 43평
- 시설비 없음
- 전세: 1억1천

- 위치 : 서울산속
- 부지 : 1300평
- 건물 : 30평
- 가액 : 13억5천만원

전국 사찰 · 포교당 · 부동산 · 스님 · 공양주 소개합니다
사무실이 독립문역 1번출구 150m로 이전하였습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충주시
- 평수 : 종교부지 800평, 밭 1200평
- 가액 : 7억
- ※ 전세가 1억(전세가능)



010-6399-5311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지하철 4호선 상계역부근
- 건물 : 2층 법당, 접견실 34평 3층 방3, 주방, 세면장
- 보증금 11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

011-888-013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가천면
- 총평수 : 343평
- 가액 : 5천만원

- 땅 230평
- 가액 : 5천만원

- 비구니스님 적합, 계곡있음

010-9267-3323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부산근처 양산
- 대지 : 700평
- 법당 : 35평, 지하법당 40평 납골당 1500기 요사, 방사 10호실
- 산자락속의 마을 도량 정리 완벽
- 가액 : 7억

※ 부산시내 사찰 및 토굴 소액 5천만원 ~ 20억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밀양시 산외면 (밀양 IC에서 10분 거리)
- 대지 235평,목조 기와지붕, 단층 법당(35.10평방미터) 조립식 지붕, 단층 요사채 (67.145평방미터)
- 산신각 용왕당 사찰내부에 있음.
- 도로 시멘트 포장,
- 사찰 내부 주차 10여대 가능
- 가액 : 2억3천만원(꼭 필요하신분만 연락요망)

010-6782-2916
054)373-291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백용사
- 법당, 칠성각, 산신각, 용왕당, 요사채
- 부지 : 약3600평
- 가액 : 7억5천만원

055)353-0611
016-422-0611

사 찰 안 내
- 위치:경남 하동
- 부지 790평, 법당 25평
- 요사채2동,창고,주차시설완비
- 비구니스님 기도처 별장용 명당 각종채소밭 있음, 관상용 양어장
- 가액:2억

010-3138-4897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토굴, 팬션 안내
- 위치: 남덕위산 자락
- 부지 : 1,630평
- 가옥 : 황토기와집 2동
- 특징 : 집뒤에 솔숲과 맑은 개울 정원이 아름다운 집
- 가액 : 4억 5천

010-9304-232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2)747-9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녕 (마산, 대구, 창원 인접)
- 평수 : 1400평
- 법당, 칠성각, 용왕당(연못), 요사채 총 100평 이상
- 가액 : 3억5천만원

※꼭 필요한분만 연락바랍니다
010-2592-1523

사찰 별장 안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중심가)
- 대지 : 175평 (주차장 100평 별도 사용)
- 법당 : 30평
- 요사채 : 현대식(2층 건물)
- 특징 : 전망좋고 편리한 도심중심가. 산에 위치
- 가액 : 3억 5천만원

016-510-24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백스코앞 지하철입구
- 평수 : 100평, 법당 65평, 옥상35평, 잔디, 앞산수려
- 스님방(욕실포함), 종무소, 다다미 참선방, 주방, 공양주방, 욕실, 다용도실
- 가액 : 전세5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 5천만원(절충가능)
- 삼존불, 영단, 종(40관), 후불탱화, 신중탱화 등, 몸만오시면 됨

010-9288-4199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덕읍 (읍에서 11Km)
- 부지 560평 중 대지 198평
- 법당, 요사채, 주지실, 일주문(방2)
- 최저가(가액은 상담 후 결정)
- 꼭 필요한분만 연락요망

016-9677-3411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 평수 : 40평(5층건물 3층) 방2, 주방, 화장실 내부시설완비 (인테리어 1년미만)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1백만원. 상담 후 결정

010-5529-8799
02)529-8799

토굴(별장)안내
- 위치 : 경북 성주(대구 30분)
- 대지 : 125평, 남향 황토집 40여평
- 심야전기, 방3, 거실, 주방 등 집 뒷산 상록죽림 청정지역 백여종 꽃밭정원과 텃밭
- 비구니 스님 수행 최고명당
- 가액 : 8천5백만원

054)933-3412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금강경, 원각경, 참선지도 승속관계없이 견성의 실체
매주 토요일 2시 법문
지도법사 : 적파명등 합장
행자 및 동자 모집
문의: 055)972-3843
011-9393-4965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지리산 삼화선원

秘法전수
못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흔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충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
- 부지 600평, 대지420평, 법당20평 목조건물, 요사채 2동
- 전세가액 2천만원 (양도도 가능)

010-4461-4123

사찰(급)안내
- 위치 : 포항근교(서포항IC 5분거리)
- 대지 : 약1000평
- 법당 15평, 산신각, 용왕각, 요사채 75평 (50평 심야보일러)
- 가액 : 절충 결정

016-536-8774

역학 속성지도
매화역수 주역 명리학 성명학
실제감정위주로 가르쳐 드리고 문서 기증함
(출장개인지도가능)
도성암 점법스님
010-7443-3060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지방인 숙식제공)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영산재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퇴마 영혼을 치유합니다
빙의 · 신끼 · 무병 · 정신질환 · 우울증 · 두통 · 알콜중독 · 만성질환
조상이나 타인 영가를 특별한 기(氣) 천도재로 병명없이 몸이 아프고, 가정불화, 우환 등 병고치유함
055)261-1230
011-586-6091
※청정 비구승입니다. 수행도량 불사나 보시하실 분

청암 달마원
달마도 정진 20년 청암법사 친필 달마도를 불사에 필요하신 스님들을 위하여 저렴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 051)202-8770
www.달마.kr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범음범패 바라 작법무 태평소 살풀이 지전무 극락무 회심곡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 전국 택배가능 ◁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재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阿彌陀佛
축원문카드관리, 예수재, 인등, 기도관리 등과 자체 신도증발행 가능, 바코드나 마그네틱 카드로 신도검색, 카드인쇄 가능, 전화걸기 기능, 신도에게 이메일 전송, 법당용 자동모니터링, 축원문 카드에 신도사진 첨부기능과 평생무료 업그레이드로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031)746-1560
www.10879.com

정법수행도량에서 기도스님(부전)이 필요한 사찰은 전화주십시오
010-4520-6787
054)433-6315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을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043)297-8728
016-428-872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농사가능한 부부도 가능
▷용인소재 사찰
011-270-2675
031)335-2576

총무보살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493-1121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011-820-3046

행자스님 모집
한국불교태고종 양산교구 종무원에서는 전통종단의 맥을 이어갈 예비스님 및 사미승을 모집합니다
※가족적인 분위기, 자율적인 교육, 1인1실
055)381-1199
011-590-119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성남
011-9854-9810

절간에서 내려오는 불가요법으로 변비 · 숙변 · 잔변 · 설사 해결
2주분(2만) 복용후 선택하세요
효과없을시 환불
달성 제 215호. 참 좋은식품
011-9562-1235
명고보살 합장

경기 · 강원 지역에 상주하면서 수행하기를 원함
부전 및 사찰소임 가능
40대 후반 비구승
(초파일 이후 이동가능)
010-4561-567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야간으로 복지학과, 유아교육 공부하실분 환영합니다
011-9583-4633
054)272-4633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0-6328-3955

법납40년, 세납 60된 비구입니다
평생기도만 했습니다
노전자리 구합니다
019-590-3558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모집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수행 ● 산중 감포분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 수행 · 공부의 모든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행자문의 : 010-2488-8228

▶ 신입생 주 · 야간반 모집 ◀
- 대구큰절, 경산도량, 칠곡도량, 구미도량 동시모집
- 주1회 공부 / 학력, 연령제한 없음 ● 회주 우학스님(불교TV 및 불교라디오 법문)직강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사회복지사. 한문지도자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부처님의 새벽별은 지금도 빛나는데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얻으시는 순간, 부처님은 새벽별을 보고 계셨습니다. 새벽별과 눈 만추는 그 순간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를 깨치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에 넘쳐 한동안 열락을 즐기셨습니다.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의 그 새벽별, 지금도 그 새벽별은 새벽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새벽별에 눈 맞추고 깨침의 열락을 즐기는 사람을 기다리며 새벽하늘을 밝히고 있습니다. 눈 뜨세요. 그리고 저 별을 보세요.

공익법인 韓國六壬學會

www.taotemple.net



총재 **효사** 外 2,000정 회원 一同

역학문화를 선도하는 공익법인 한국육임학회

한민족의 근원적 사상인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
천지인동근(天地人同根)이요
천지인 일체(天地人 一體) 즉,하늘과 땅과 사람은 하나임과 함께
육임가(六壬家)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원형은 하늘,정사각형은 땅(지구), 가운데 직선은 인간(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제사장)을
나타내며 예언자로서의 복(卜)과 예언을 청하는 뜻의 점(占)이 어우러져 있다.

☎ 02)993-8680 서울 강북구 수유 3동 190-49호

- 효사 활인천역집 III 프로그램CD (육임 · 사주 · 성명 · 월영도 · 주역 등 18술 종합)
- 육임대계전서(전60권)
- 효사 육임 강의록(학습서)
- 각일 각시 분만비법(활용서)
- 육임풍수(활용서)

※ 효사 · 육임복변집이 곧 발간됩니다. 교체바랍니다. 신청하십시오.

양주경찰서경승단

고문 대운
실장 용하
총무 석정
재무 귀영
위원 법화 도일 청호
덕현 청일 원돈
왕산
감사 정오스님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산 84-7 전화 031)857-7755

"불기 2551년 부처님 오신날을 봉축합니다"
온 누리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 하소서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원로의원 법달 법묘 원정 청곡 현공

총무원장 법우

사정원장	도현	사서실장	현각	부원장	혜관
기획실장	송광	총무부장	무원	교무부장	청암
재무부장	동월	사회부장	법현	규정부장	초혜
포교부장	덕암	교무국장	정법	사회국장	왕연

- 종도 및 종무원 일동 -

총무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영동 93번지
전화 02)394-9468, 9 / 팩스 02)395-9468

현대불교신문 629호(5/23)일자에 게재된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임원안내 봉축광고는 대한불교일붕선교종의 광고내용과 다르게 게재되었음을 알리며, 위의 내용이 정확한 내용임을 공지합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8교구본사 말사

전법기도도량 남장사

주지 종호

신도일동

- 냉림사회복지관 운영 · 부설 보광어린이집 운영
- 상주자활기관 운영

경북 상주시 남장동 502
전화 054)534-6331

대한불교법화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종무원장 혜각

총무국장 도광
재무국장 지성
교무국장 일우
감찰과장 운봉

종회의장 도정
부의장 진덕
부의장 법원

대구광역시 수성구 중동 551-102
전화 053)766-7231/팩스 053)766-7232



자신의 빛 감추고 중생과 한 몸 되어…

경허·혜월 스님 등 은둔 선사 33인의 삶 책으로 엮어

은둔 조연현 글·사진 | 오래된미래 지음| 8800원

"수월이 머슴처럼 일하며, 중생에게 베푼 정성은 하늘도 감동할 정도였다. 그는 절에 손님이 오면 발 감싸개인 감발을 벗겨 손수 빨아서 불에 말려 아침에 신도록 하고, 밤새 몸소 만든 짚신 서너 켤레를 바랑 뒤에 매어주곤 했다. 그의 제자로 당대 선사였던 만공은 생전에 수월 형님만 생각하면 늘 가슴이 뛴다며 그의 자비심에 환희를 일으키곤 했다."

치열한 구도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선사들의 삶을 소개한 책 <은둔>이 출간됐다. 이 책에 등장한 선지식들은 생사를 초월한 고행을 통해 불자들에게 전설처럼 회자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선지식들은 단지 깨달음에만 멈추지 않고 불교 수행의 마지막 종착점인 중생과 한몸이 되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삶을 실천하고자 했다.

<은둔>은 경허, 혜월, 일엽, 경봉, 수월, 만해, 효봉, 만공, 용성, 탄허 스님 등 근 · 현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 33인의 향훈을 담았다. 소개된 스님들 가운데 금봉, 보문, 석봉, 일우 등 절반 가량은 불교전문서나 언론에 조차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또한 지월, 수월, 벽초 스님 등도 제대로 조명된 바 없다.

저자는 "이 책의 제목인 '은둔'이란 단순히 세간을 피해 산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자신의 빛을 감춘 채 중생 속에 숨어들어 그들을 돕는 '화광동진(和光同塵)' 적인 은둔이었다"고 말한다.

일본 유학생 출신이었던 제선스님이 그 좋은 예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선 스님은 도봉산 천축사의 무문관 6년 결사 때 마지막까지 남았던 두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철두철미한 수행자로 알려진 그는 6년 결사 후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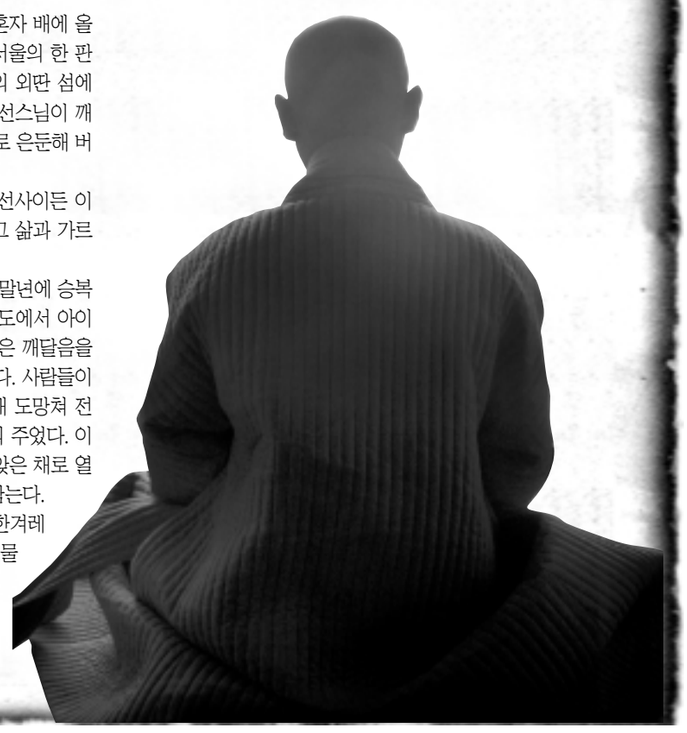
그가 세상에 남긴 흔적이란 고작 부산에서 혼자 배에 올랐다는 소문이 끝이었다. 혹자는 제선스님이 서울의 한 판자촌에 숨어 수행한다고 했고, 어떤이는 남해의 외딴 섬에 산다고 했지만 모두 소문에 그쳤다. 저자는 제선스님이 깨달음을 얻은 뒤 자신의 빛을 감추고 세상 속으로 은둔해 버렸다고 추측한다.

세간에 잘 알려진 선사이든 알려지지 않은 선사이든 이들은 이 책에서 '은둔'이라는 하나의 테마로 그 삶과 가르침이 재구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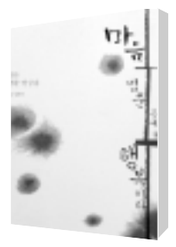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 불리는 경허선사는 말년에 승복을 벗고 머리를 기르며 이름까지 바꾼 채 함경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세상을 떴다. 그의 제자 수월은 깨달음을 얻은 뒤 절에서 불목하니와 나무꾼 노릇을 했다. 사람들이 생불을 몰라봤다며 조실로 대접하려 하면 몰래 도망쳐 전국을 돌며 유랑민들에게 주먹밥과 짚신을 나눠 주었다. 이외에도 생사해탈을 얘기하며 차를 마시던 중 앉은 채로 열반한 혜수 스님 등의 이야기도 진한 감동으로 남는다.

원래 이 책속의 글들은 저자가 몸담고 있는 한겨레신문의 기획 연재기사가 모태였다. 저자는 기획물인 '은둔의 선사' 흔적을 찾아 전국의 산사를 헤맸고, 그런 스승들을 가슴속에만 묻어둔 수행자를 직접 만나기 위해 깊은 산사의 암자와 선방, 토굴 등을 찾았다. 그리고 마침내 한 번도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는 '숨은 은자' 들을 발견했을 때의 감회를 고스란히 이 책에 옮겼다. 수년간 발품을 판 저자에 의해 세상 빛을 보게 된 '은자'들의 삶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 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전하는
마음 다스리는 생활법문



마음 멈춘 곳에 행복이라
성타 스님 지음
은행나무 펴냄 | 1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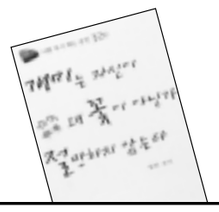
이웃과 공동체의 삶, 세계 평화와 환경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기울여온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이 이 같은 기회를 실생활 속에서 보다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한 말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책 속에 담긴 글들은 대중적이며 쉽고 재미있게 읽힐 수 있는 생활 법문과 크고 작은 세상사를 불교인의 눈으로 본 소회를 적은 시론들이다. 투박하고 정제되지 않은 글 솜씨이지만, 한 구절 한 구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쳇바퀴 돌 듯 바쁜 우리네 삶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가를 일깨워 준다.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황소같이 자란다. 살은 불어나지만 두뇌와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스님은 <법구경>에 나오는 이 얘기를 통해 우리에게 묻는다. 우리는 지혜의 통로를 스스로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수많은 대화 가운데 내가 진지하게 경청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 스님은 많은 이들이 지혜는 입을 통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귀를 통해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고 지낸다고 설명한다. 즉 말의 홍수 속에서 일방적인 말이 아니라 서로 교감하고 배려하며 마음에 따뜻함이 전해지는 '말다운 말'이 필요한 때라는 것이다.

아울러 스님은 이 책에서 '자신의 마음자리를 잘 살피라'고 당부한다. 스님은 "마음을 바로 보면 내가 진정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게 되고, 스스로 자신이 주인이 되는 수행과 기도에 힘을 기울이게 된다"고 말한다.

김주일 기자

계절별로 읽는 명상 320구



개미는 자신이 왜 꽃이 아닌가, 절망하지 않는다
법안 스님 지음
정우서적 펴냄 | 1만원

명상 경구 320개를 계절에 맞게 분류했다. 불교방송 1분 법문에 출연하고 있는 법안 스님(서울 대성사 주지)이 <법구경>과 성현의 말씀 등에서 가려 뽑은 주옥같은 명구들을 한데 모았다.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번영하고 진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망한다. 나쁜 사람을 사랑하고 착한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며 나쁜 사람이 하는 일을 즐기면, 이것이 곧 파멸의 문이다."

법안 스님은 "우리의 마음을 닦는데 많은 말씀과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깊이 명상한다면 큰 수행이 될 것"이라고 전한다. 김주일 기자

땀내음 나는 '깨달음의 언어'



없는 것의 무게
지월 스님 지음
디오네 펴냄 | 9,800원

절은 수행이다. 무릎이 깨어지고 방석에 떨어진 땀방울 만큼 자신을 낮추며, 깨달음을 향한 갈망으로 마음을 닦는 모습이다. '300백 만 배의 공덕'으로 가난한 어촌을 위해 헌신해 온 울산 금어사 지월 스님은 책 <없는 것의 무게>을 통해 부처님을 향한 '확철대오'의 길을 잔잔하고 깊은 울림으로 전한다.

지월 스님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이해하지 못하면 쓰레기와 같고, 아무리 나쁜 말이라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말은 보물과 같듯이 이 책이 독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책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각 주제마다 재미있는 예화들도 가득 담겨있다. 하성미 기자

읽기 쉽게 풀어쓴 '금강경'



알기 쉬운 금강경
정여스님 지음
혜성 출판사 펴냄 | 3만원

"금강경은 반야의 해맑은 지혜로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에서 네 가지 상을 벗어난 맑고 청정한 부처님의 마음에 머물도록 이끌어 주신 샘물과 같은 가르침이다. 그냥 읽다 보면 티 없는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고귀한 가르침인 것이다." <알기쉬운 금강경 중에서>

부산 여여선원 선원장 정여 스님은 그동안의 금강경 강의를 모아 이 책을 편찬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바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설한 <금강경>. 특히 초심자도 읽기 쉽게 풀어낸 정여 스님의 <금강경>은 독자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의 길을 가도록 제시해 준다. 하성미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2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3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염불수행입문	불학연구소	조계종출판사
6	스님, 마음이 불편해요	법륜	정토
7	절을 기차게 잘하는 법	청견	붓다의 마을
8	문없는 문, 빗장을 열다	김성우	클리어마인드
9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
10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다심)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구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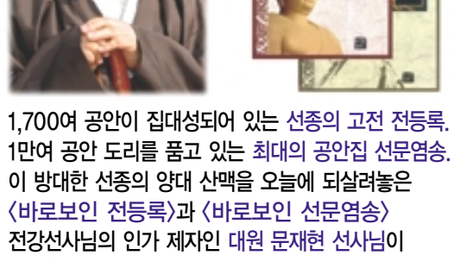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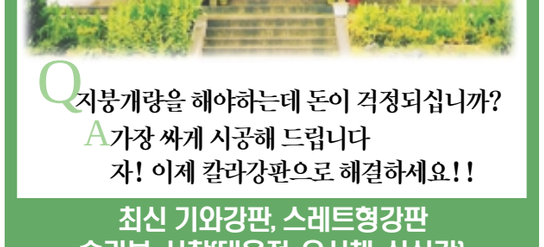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전강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저



1,700여 공안이 집대성되어 있는 선종의 고전 전등록.
1만여 공안 도리를 품고 있는 최대의 공안집 선문염송.
이 방대한 선종의 양대 산맥을 오늘에 되살려놓은
〈바로보인 전등록〉과 〈바로보인 선문염송〉
전강선사님의 인가 제자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깨달음의 정수가 살아 숨쉬도록 새롭게 밝혀 보였다.
대웅전 완공 기념 파격할인!!
바로보인 전등록 전5권 – 5만원(45% 할인)
바로보인 선문염송 1~10권 : 105,000원(30%할인)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는 선가귀감
서울 법회가 6월 3일(日) 열립니다.
◆서울선원 ☎02-522-0122(매월 첫째 일요일) 오전11시
◆광주선원 ☎062-944-4088
선문염송/6월17일(매월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부산선원 ☎051-545-2460
◆반야심경/6월24일(매월 넷째 일요일) 오후 3시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전국무료전화 080-011-8504 (바로공사)
서울 · 경기도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7638-1117
전라도 : 010-2311-0157
현대칼라지붕공사



대행스님

좀 너그럽게 사세요! 인생은 한 철이에요!

마음의 계발이 진부한 것 같아

문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풍요와 발전이 아닌 마음의 차원이 높아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물질문명이 발전된 이 첨단의 세계에서 마음의 계발이 된다 하면 어떤 변화가 있고 어떤 이익이 있게 되는지요? 과학문명의 발전으로 인간을 복제할 수도 있고 달나라를 여행할 수 있는 이 시기에 마음의 계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고루한 것인 양 치부되는 것 같아서 질문 올립니다.

답 예전에 미국 동남부의 해협, 그 삼각 해역에서 일어났던 일들 여러분, 잘 아시죠? 비행기 사건. 그게 언젠가? 1945년이었는지 언젠지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성이 계발이 됐다면 그렇게 말려들어갈 리가 없거든요. 물이나 흙이나 지수화풍에 다 생명이 있고 핵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이 전자(前者)에 전자가 그 핵을 보강하고 있는 그것을 알고 현자(現者)가 바로 그것을, 후자와 더불어 전자(前者)·후자(後者), 양자(兩者), 중성으로서 내가 그 핵의 능력을 발휘해서 가지고 있다면 상대에서 끌어 잡아당겨도 내가 그리로 쏠려 들어가질 않아요.

한 가지 더 보강해서 말한다면 내가 이것을 발견해서 이것을 찾고 들어간다면, 즉 말하자면 십오 리, 백오십 리, 백오십 리 안팎으로 첫째 알 수 있고, 팔십 리를 알 수 있고, 백 리를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숫자 아닌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서 어떠한 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에서는 스스로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고 자동적으로 알면 자동적으로 그것은 대기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서 재료가 보강돼 있기 때문에 레이더망도 그대로 보강돼 있어요, 다. 그런 데다 그 능력이 부실하지 않다면 그것을 오히려 빨아들일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고 내 능력이 100% 보강이 되죠. 그런데 내가 빨려들어 간다면 내 힘이 다 그리로 빠져 버리는 거죠.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마음이 밝아지고 계발이 되면 십이존불(十二尊佛)이, 즉 말하자면 '즉여별성'이라고 그럴까? 뚜렷한, 그 최고의 밝은 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십이존불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것이 전파가 돼서 바로 나한테 그게 보강이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그것을 끄는 힘과 끌리지 않는 힘, 주는 힘과 끄는 힘 이것을 다 보강을 해 가지고 있게 된단 얘기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죠. 왜 비행기가 그렇게 말렸는가? 십여 명을 태운 그 아주 일등 기사들이라는데 말입니다. 십여 명씩이나 기사들이 탔는데 왜 그게 없어졌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서로 전자(前者)·후자(後者)·현자(現者)가 전부 보강돼서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이거든요, 삼각이니까. 삼삼(三三)은 구(九)거든, 벌써. 숫자적으로 따진다면. 거기서 쪼개고 또 쪼갠다면 수없이 그냥 많아지죠.

그러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세요. 색경을 여러 개를 놓고 한번 보고 오세요, 앞뒤로 놓고 옆으로도 놓고. 그러면 내가 몇 개가 되나? 그 핵의 힘이 그렇게 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이 삼각이라는 것은, 그것도 모두가 자기의 그 보강된 원자·핵·전자 이런 것이 자력, 끌어당기는 힘을, 즉 말하자면 이름 해서 그것도 붙인 거겠죠. 모두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지구도 이렇게 붙어 있겠지만 우리 힘이 그렇게 강하다면 그 거대한 게 다섯 대고 몇 대고 송두리째 없어지진 않았을 겁니다. 당기는 힘이 강하니까. 우리가 지금 공중에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이래 보세요. 만약에 그 바깥에다가 물건 하나를 내던져 보세요. 그 물건이 어떻게 돌아가나. 나침판이 없이 그냥 막 돌아가죠. 그렇게 힘이 세단 말입니다, 빨아 당기는 힘이.

그런데 산에 다니면서도 체험을 해 봤지만 모두 그렇게 용도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가 뭐냐면, 내가 물질이 참 징그럽고 무섭다 하면 그 영(靈)의식만 가지고 만나거든요, 물질 몸뚱이는 안 만나도. 그래 그게 싫으면, 백 리 안팎, 십 리 안팎만이라도 '아이, 우리 모습으론 보지 말자' 하고 하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건 인간들이 사는 거나 벌레가 사는 거나 새들이 사는 거나 물에서 사는 거나 짐승들이나 다 똑같아요. 우리 사람의 의식으로는 '아이고, 구더기가 돼 가지고 더러워서 어떻게 사나.'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나 구더기 속에 들어가 본다면 구더기는 구더기 나름대로 살만해요. 우리가 금 보듯이 똥도 그렇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살림살이하는 그 나름대로 용도대로 주어진 그 삶이, 그렇게 그냥 사는 멋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거기를 다 거쳐 왔기 때문에 만약에 계발이 된다면, 능숙하고 지혜롭고 첨단을 넘어가리만큼 그렇게 무(無)의 세계, 유(有)의 세계를 왕래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갖는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지금. 옛날에 한국전쟁 났을 때도 접시비행기가 많이 나타났죠. 난 그걸 봤어요. 제가 그때 스물세 살인가 그렇게 됐을 무렵이거든요. 그런데 반짝 반짝 반짝 하면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낮게 딱 스쳐 가는데 뭐가 파괴가 된 줄 아십니까? 물질이 그냥, 그냥 거기서 파괴가 되는 겁니다. 아마도 그릇 굽는 가마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창문으로 내다본 것이 그거거든요. 많은 공부가 됐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것이 부처의 스승 아닌 게 없고 또는 모든 것의 부처가 스승 아닌 게 없다고요. 항상 이런 말을 하지만 풀 한 포기도 벌레 한 마리도 그냥 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배움에 의해서 그것이 확립되고 조화가 되고 조절이 되고 지혜가 늘어나고 이러니까 그것이 스승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두가 생명들이 있어서 힘들이 강하면, 그 힘이 있다는 거를 입증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삼각 해역에서 비행기가 없어졌다는 것도 입증입니다. 벌써 우리보다 앞서 진화된 생물이 있다는 겁니다. 접시비행기가 떠서 그렇게 다니고, 백 마일쯤이든 뭐 고걸 정해서 보진 않았지만 그만큼 파괴가 된다는 것만 해도 벌써 그것은 입증이 되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계발이 된 생물이 있구나 하는 걸 말입니다.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하면 꼭 그걸 봐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연구가 되고 안에서 일어나는 것도 연구가 되는 거거든요, 양면을 다.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아니 되니까, 현실도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 버릴 게 없거든요. 결국은 현실로 나오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 육체도 당신 게 아니니깐 간수 잘해라 이겁니다. 자식들은 자기 것이 아니라 부모 겁니다, 육신이. 자기 육신을 간수를 잘못하면 그 부모가 아주 고통을 받고 그렇게 애를 쓰거든요. 몸을 간수 잘하는 것도 효도다 이거죠. 자기 몸뚱이라고 함부로 굴려서 부러지거나 뭐 다치거나 또는 병들거나 이런다면 그건 불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발을 하는 그만큼 앞으로 불국토가 다가온다는 거, 그리고 정신계의 목전에 도달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정신계가 아니

☞14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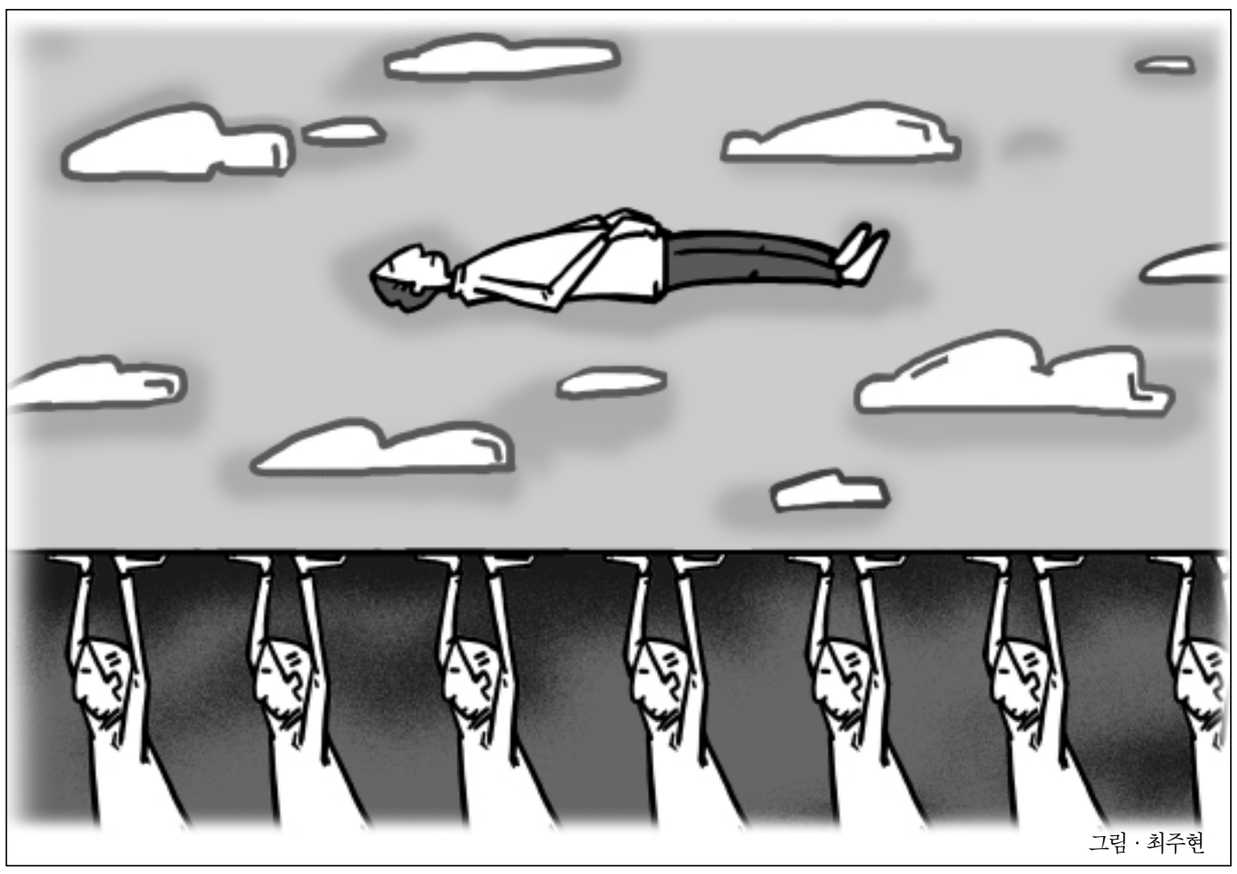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봉 부처님의 팔만 사천 법문 일체가 종교 이상의 진리요, 과학이요, 의학이고, 의술이다. 축



불법 佛法은 의학이다

송담淞澹 지음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 봉선사 조실이시며
동국대학교 불교 역경원장이시고 (生佛)이신
월운대선사께서 책내용 모두가(인간들에게)
구구절절 약이 되는 감로수와 같다고(찬탄 하시였다)

신국판 | 319쪽 | 값10,000원

송담 스님이 온갖 질병과 괴질로 고통 받으면서 죽어가는 사람들과 사업이 부도가 나 패가망신하여 가정이 파괴되는 과정을 보면서 부처님의 법문으로 환자와 가정과 사업을 일으켜 주었다.
우리 인간들에게 지수화풍地水火風의 4대에서 각각 101가지씩 404가지의 병이 발병된다고 하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많은 환자들의 병을 치료하였던 경험담이다.*

※ 문의 – 법화사 | 02)2612-3358

전화 : 02)335-7883 팩스 : 02)335-7858 전자우편 : babosae@kornet.net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 기초과정
● 전문가과정 ❶ 맥진반 ❷ 사암침술반 ❸ 즉효요법반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오행처방법, 뼈교정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 2007. 6. 4 (월 · 화반) / 6. 9 (토 · 일반)
토 · 일요일 : 사암도인 맥진법 강좌 (1개월 완성)
※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합시다!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수시접수

명리전문가과정 맥진전문가과정

사암침술학회

• 서 울 : 종로3가 국민은행 4층(지하철1호선 1번 출구)
문의 : 02)747-9136. 011-307-2975

동서양식 레이키(靈氣)가 왜 화제인가?

동서양식 「레이키(靈氣、Reiki)」를 배우면
누구나 바로 氣치료 능력자가 될 수 있고
생활의 각 방면에 氣에너지를 널리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레이키는 이미 전세계 50~60개 나라에 널리 보급돼 있지만 우리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에서 전수해 드리는 동서양식 레이키는 여러가지의 레이키 기법을 융합한 것이어서 아주 쓸모가 많습니다.

1. 동서양식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기간 2~3일, 교육비 70만원
▶단체교육 : 교육기간 2일(매월 1회 · 토,일요일)
교육비 55만원

2. 카루나 레이키 교육
▶개인교육 : 교육시간 4~5시간 정도, 교육비 30만원
카루나 레이키는 동서양식 레이키를 배운 다음에야 배울 수 있습니다.

3. 지도자 소개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의 운영자인 저(박희준)는 번역가 · 저술가로 활동해 오다가 1997년 이후 외국에서 여러가지 레이키를 배워온 우리나라 레이키의 개척자 입니다.

인터넷 : www.Reiki.co.kr(현대생활레이키)
자매홈페이지 : www.영혼실재주의협회.com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89-27 피어선빌딩 809호실
전 화 02)720-5719, 720-5682
핸드폰 010-8392-2557

모두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13면에서 계속

라면 지금 손도 대 볼 수 없으리만큼 앞으로 다가와요, 목전에 있다고. 그러니 인간으로 돼서 얼마나 급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부터 알고 계발하기에 얼마나 급급하냐 이 소립니다. 지금 시대에는 말, 육체 이걸로써 해 나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몸은 가만히 두고 정신력으로서 마음을 조절하고 들이고 낼 수 있어야만이 스스로서 움죽거리게 만드는 작업이라는 걸 다 아시기 바랍니다.

유체이탈에 대해서

문 제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낮에 좀 자려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야지' 하면 제가 육신은 땅에 있는데 천정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일어나야지' 하면 분명히 내 육신은 그대로 있었는데 내 발을 보는 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왜 너만 일어났어?' 그러고 다시 누워서 육신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때도 저는 분명히 눈을 감고 있었는데 벽을 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요?

답 그래 그놈은 한두 명이 아닌 가운데 그놈이거든요. 그러니깐 그것이 총 종합된 한 놈의 기둥입니다. 그러니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끄달리지 말고 속지 마세요. 모두 그놈한테서 화(化)해서 바꿔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석존께서도 6년을 고행하실 때 어떠한 문제가 그림자같이 나와도, 화해서 나오고 미녀로 나오고 이래도 그거는 자기한테서 나온 거니까 개의치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항복받았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어떠한 문제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서 나온 거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나고 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냥 지금도 그렇게 나고 들고 하죠. 여기에 이렇게 앉아서 저 미국으로 다녀온다고 하더라도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것이 바로 빛보다도 더 빠르게 움죽거리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나왔다고 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니까!' 하고 거기 다 놓았을 때, 또 그렇게 어디로 나가 봤으면 하지도 말고 들어가 봤으면 하지도 말고 '너니까 나를 가르치느라고 그러는 거지.' 그렇게 하고 말입니다. 이게 어디라도 갈 데가 있어야, 가게끔 정립이 돼야 아주 거침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거지, 가게끔 정립이 되지 않았는데 괜히 당신 마음이 그걸 가지고 농락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건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서 해결하고, 또 나쁜 거는 좋게 해결을 하고 또 안 되는 거는 되게 하는 거고, 또 된 거는 감사하게 놓고, 바꿔서 나오는 거라도 걸리지 말고 그것이 한 군데서 나오는 거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하니까. 일체가 다 한 군데서 나오지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악도 선도 한 군데서 나오지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그 구멍에서 나올 진댄 좋은 걸로 바꿔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구멍이 아니라 한 구멍에서 나오는 거니까 악도 선도 맘대로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있으니까 모든 게 있는 거지 없다면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당신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그 놈이 바로 나의 근원처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대로 믿고서는 그 자리에 다시 놓고 열심히 생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체가 다 한 군데서 나오지 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천도재를 지내야 하는지?

문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2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작년쯤부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서 막 야단을 하고, 또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또 자꾸 보이고, 그러다 어느 날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꿈에 그럽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15년 가까이 자주 꿈꿔져서 자꾸 관하는데도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재사를 지내야 해결이 날는지요?

답 댁이 형성되기 전은, 바로 전에 살던 자기 조상이죠. 그것은 아버지(父)가 되죠. 그리고 지금 사는 모습으로서의 당신은 바로 자(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 겁니다. 내가 항상 '죽어야 너를 본다' 이러죠? 그럼 그거를 한번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공한 도리를 알면 죽은 것이다'라는 거요. 또 어머니가 죽었다 이랬죠? 어머니가 죽은 거는, 하늘과 땅이 전체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생(生)하죠. 그런데 또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다 돌아가셨다고 그런다 그랬죠? 다 돌아가셨으니까 천(天)·지(地)·인(人)이 그대로 다 죽었으니 자기는 살아날 가망이, 새싹이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문이 좀 열린다 이 소리죠, 그게.

그걸 왜 부모에다 들이대고 뭐가 안돼도 조상의 탓으로 자꾸 돌리세요? 자기 조상의 탓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은 자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부모의 모습으로 화해서 보여 주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시도 꿈이고 꿈도 생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르치는 것도 꿈이요, 꿈에 가르치는 것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꿈이다 생시다 할 거 없이 그런 꿈이 꿔지면 재사 지낼 걱정 하지 말고요, '아하! 이게 나의 채찍이로구나. 아, 이제 두 분 다, 자기와 자기가 다 죽었으니까, 둘 아니게 죽었으니까 문이 좀 열리게 되나 보다.' 하고, '아휴! 참 감사하구나!'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죠.

마음 편안하게만 살면 되는지?

문 예전에 교수 임용 건으로 찾아뵈었을 때 제 딴에는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되지 않아서 솔직히 처음에는 스님을 원망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 아상과 아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스님, 이렇게 모든 것을 내 근본에 맡겨 놓고 편하게만 살아가면 되는 것인지요?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답 누구나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겠죠. 그런데 댁이 교수 자리가 나서지를 않아서 참 힘들다고 그랬죠? 그거를 더퍽 부처님께서 해 줬어 봐요. 댁이 지금 샛눈이라도 떠 갈 수 있다고 말을 하겠나.

하여튼 사람마다 먹고살기 위해서 그러겠지만 그렇게 극치적으로 그냥 안달복달하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모두. 좀 너그럽게 하시고요. 인생이 한 철이에요, 한 철! 우리가 인생 한 철을 그냥 아주 급급하게 살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과 같이, 또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것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급급하게 살지 마시고 망망대해에 가다가 빠져 죽든, 살얼음판을 가다가 미끄러져서 엎어지든 젖혀지든, 그런 거 상관할 것 없이 자기는 그냥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으니까 주인이 알아서 다 하겠지 하고, 몽땅 그냥 맡기고 편리하게 놓으세요, 그냥.

그저 라면 한 그릇 먹으나 밥 한 그릇을 먹으나 하루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항상 그래요, 밥을 한 그릇 떠다 주나 눌은밥을 반 그릇 갖다 주나 나 먹기는 똑 마찬가지예요. 뭐, 그거 별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해 먹자, 더 좀 맛있는 거 해 먹자 이러는 마음이 파란을 일으켜요. 그냥 생기면 생긴 대로,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들어온 대로, 또 가면 가는 것 잡지도 말고 오는 것 막지도 말고, 생긴 대로 물 흐르는 대로….

물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만물만생이 다 물속에서 살아도 다 그저 집이 돼 주면서 끝없이 유유하게 흘러가는 나를 보고 살아라. 나같이만 살면 뭐가 걱정이냐?' 하죠. 산은 산대로 나 같이만 살라고 그래요, 묵묵히. 그런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한 철 날 놈의 거. 한 철 동안 공부하시는 게 세세생생으로 돌아가고, 세세생생에 돌아가는 그 자리의 권한으로 먼저 가신 위의 조상들도 다 건질 수가 있고 아래의 자식들도 다 건질 수가 있거든요.

너무나 급박하고 답답해요!

문 처음에 이 마음의 도리를 공부해 나갈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환희로웠는데 지금은 제 앞에 아무것도 비치치 않는 어둠처럼 모든 것이 차단된 느낌입니다. 평탄대로의 길처럼 모든 게 원만했던 사업도 절벽을 만난 듯 가로막히고 연로하시기는 했지만 정정하셨던 어머님도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모든 게 급박하고 옴폐부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계도 저의 근본에서 나온 것인지요?

공부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오직 한 군데서 나온 거니까 속지 마세요!

답 세상은 뛰어가는 것도 없고 안 뛰어가는 것도 없어요. 그냥 뜸뿍뜸뿍 걸어요. 그것이 바로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이 진리와 같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아주 철두철미하게 내가 믿는 동시에, 그냥 그대로 활을 쏘면 정면에 쏴야지 설쐈다가 그쪽에서 오히려 도로 살이 들어오면 내가 맞아 죽어! 그와 똑같아요.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얍삽하고 천차만별로 변질이 되고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걸 요렇게 생각도 하고, 사람이 착잡하고 괴롭고 고독하고 가난하고 이런다면 별의별 생각이 다 나지만 그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공부하기가 쉽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조리 그냥 놓는 겁니다. 일체 만법을 확보해 돌아갈 수 있는 그 근원에다가, 근원에서 나오는 거니까 근원에다 다 놓는 겁니다. 맡겨 놓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 벽을 뚫고 나갈 수도 없고, 요렇게 아주 급박할 때에 내가 공부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 급박하게 만들어 놓는 것도, 바로 어떻게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자기 주인공이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자기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도 만들었는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거라고요. 공부를 시키는 거라고요. 그러면 빠져 나갈 구멍이 없이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나 이겁니다. 그러면 이 색(色)으로만 생각하고 사량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죽겠으니까 내가 어떡하든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건 소용없는 겁니다. 벌써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나 그걸 보느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량으로 빠져나가려면 저런 창문이 문인 줄 알고 그냥 나가려고 애를 쓰죠.

그렇게 급박할 때 모든 걸 다 맡겨 놓는 그러한 그것이 바로 내 대로를, 이 벽도 봇장도 다 없이 그냥 확 뚫어 버리는 그러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옴폐부득 못하게 됐을 때 말입니다. 사람이 가난치 않고 돈 있고, 친구들 많고 아, 내가 그냥 모든 게 풍족한데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고놈의 거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쪼세요! 진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 앞에는 요렇게 그냥 딱 조이게 만들어 놓고, 요렇게 옴폐부득 못하게 해 놨을 때, 요것이 홀랑 껍데기를 벗고서 우주 바깥을 벗고 나가나, 그렇지 않으면 그 껍데길 쓰고 껍데기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나 그걸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참 묘하죠, 모두가 다.

그렇게 되면 언제나 여러분도 자기 자신이 너무나 모든 생활에 짓밟힌 것 같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거 같고 그렇지만 이 나의 주인은 떳떳하고 도도하기에 그 자기를 그렇게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같이 도도하게 흐르기 위해서 자기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체득을 못하면 '아하! 이건 내가 이렇게 되니깐 아이구, 아이구….'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아하! 여기서 그러는구나. 그건 당신이 다 알아서 해. 내가 이 자리에서 앉아서 죽든 나가서 죽든 병이 들어 죽든 가난해서 죽든 나한텐 아랑곳없다, 네가 끌고 다니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하고 봤을 때에 비로소 주인이자 나를 끌고 다니는 시자가 되니, 이 몸뚱이는 시자라 그랬는데 고만 마음이 주인이자 시자거든. 시자이자 주인이고. 하, 이게 둘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배울 때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주인공이 바로 자기 시자이자 주인공이자 부처이자 자유인입니다.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이 다음에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더라도 알 바가 생길 것입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징 자
칼럼니스트

'현장의 눈' 감으라는 소린가

터무니없는 비난, 아니 정당한 비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을 향한 것이라면 누구나 화가 나게 마련이나, 그 화는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평소 진심(嗔心)에 대한 수행을 쌓아 온 사람이라면 어지간한 비난이나 비판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능력과 자신감이 넘치는 투명하고 당당한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할 것이고 터무니없는 비난을 하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난이나 비판에 '발끈'하는 사람은 능력과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 등 여러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비난이나 비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을 감추려 든다.

'부시의 푸들'이라는 모욕적인 빈정거림에도 태연했던 영국 토니 블레어 수상의 예는 자유민주화의 성숙도 높은 영국적 사회분위기가 만들어 낸 것일 터이나, 기원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페리클레스 등 권력자가 "권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수단이 비판"이라며 그들에게 비판의 자유를 존중해 주었다는 것은 바로 능력과 자신감에서 나온 예가 될 것이다.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을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버려 비판자체를 원천 차단한 로마 황제가 적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비판의 자유 존중'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치열한 비판정신은 불교경전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유마경>이다. 이 경전에서 유마거사는 아라한의 경지에 들어가 있는 부처님의 십대제자 한 명 한 명에게 혹독한 비판을 가한다.

그렇게 당한 제자들은 부처님에게 "유마거사를 감당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거사의 병문안을 회피하려 한다. 성인반열에 든 사람이라 해도 이처럼 자신에 가해지는 비판을 두려워하는데 평범한 속인은 말 할 것도 없고 하물며 속세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모든 권력과 권위가 언론의 바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취임 초부터 언론과 각 세우기로 유명세를 더한 현 정권이 그 말기인 요즘 '취재하지 말고 부르는 데로 받아쓰라.'식의 언론활동 제약을 시도하고 있다.

각 부처에 있는 기자실을 통폐합하고 상주기자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자실 운영시스템을 바꾸며 담당공무원 직접취재는 원칙적으로 불가, 모든 취재를 공보관 실을 통해 하도록 하며 등등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한 언론의 접근을 그야말로 봉쇄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어쩌면 해외토픽 감으로도 모자람이 없을 듯한 이러한 조치를 왜 하는 것일까? 무엇을 그리 덮어두어야하며 무엇을 그리 감추어야하는 것일까?

19세기 프랑스 문호 발자크는 '기자의 본성에 관한 보고'란 글에서 부정적인 기자 상을 혹독하게 나무라고 있다. 신문기자에 논설위원, 사장까지 했던 현장의 눈으로 비판한 것이니 반론의 여지도 없다.

'정치드라마의 연출자' '힘없고 고립된 사람들을 향해서만 자유롭게 말하는 기자.' '칭찬만 할 줄 아는 무비판의 기자' 등 10여 년 전에는 미국의 한 사회 비평가가 '보도 자료를 그대로 옮기는 게으른 기자'에 대해 쓰기도 했다.

현 정권의 언론 정책은 바로 위에 지적된 기자상을 되살리려는 노력에 다름 아니다. 언론인의 자질을 몇 세기 전으로 되돌리고 차원을 한참 낮추겠다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한편 이번에 내 놓은 언론정책은 국민들에게 정권 스스로의 무능과 열패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다는 점을 알았으면 한다.

불자의 눈

봉축행사는 '일회성' 아니다

이제 한 바탕의 잔치는 끝났다. 불기 2551년 부처님오신 날을 전후로 전국에서 펼쳐진 봉축 행사와 법요식이 막을 내리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다.

불자들은 이 한바탕의 잔치가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지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자신이 바로 부처임을 자각하고 부처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발원하는 순간이 바로 부처님이 오신 순간임을 불자들은 잘 알고 있다. 봉축기간에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와 법회는 그러한 발원을 보다 견고하게 다지고 이웃과 함께 나누며 일상화 하자는 의미를 갖는다.

올 봉축행사는 전반적으로 아름다웠고 흥겨웠다. 축제는 축제 그 이상의 감흥으로 불자들의 가슴에 아로새겨져 신행을 촉진하는 자양분이 되었을 것이고 각종 의식들도 장엄하고 엄숙하여 불자로서의 바른 삶을 발원하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올 봉축 행사는 다양성이 돋보였다. 어린이 청소년 장년층을 위한 각종 행사들이 펼쳐졌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의 실천도 어느 해보다 두드러졌다. 장애인을 위해 수계법회를 베푼 것도 매우 뜻 깊은 봉축행사였다. 지역에서도 봉축 장엄등을 화려하게 밝혔고 이웃을 위한 봉사와 나눔의 행사를 다양하게 펼쳤다. 전국이 부처님 오신 뜻을 기리고 '부처로 살기'를 발원하는 열기로 넘쳤다.

특히 서울에서 펼쳐진 연등축제의 경우 외국인의 참여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제 한국의 연등축제는 외국에서 훌륭한 관광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연등축제를 비롯한 각종 봉축행사는 해를 더해 갈수록 장엄하고 내실을 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아쉬운 점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봉축행사를 연례행사로 인식하는 것은 위험하다. 봉축행사는 때가 되면 한 번씩 치르는 행사가 아니다. '날마다 부처님오신날'이라는 말이 있듯이 매일이 봉축행사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은 날마다 봉축행사처럼 장엄하고 아름답고 깨침으로 가는 노력의 시간이어야 한다. 때문에 봉축행사는 한 차례의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변화 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동력을 증폭해 나누는 촉진제라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아야 하겠다.

이 점은 봉축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주체들이 먼저 명심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이라거나 '일회성'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불자의 신심을 고취시키고 비불자를 불자로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모든 행사는 참가자와 관람자의 입장에서 균형 있게 설계되어야 한다. 참가 대상이 불자라고 하여 비불자들을 소외시킨다면 포교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봉축 행사는 관람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행사를 관람하는 비불자들이 환희심을 일으켜 불교로 귀의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할 때 행사의 의미가 더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연구도 필요하고 재정적인 지원도 필요할 것이다. 종단과 단체 지역의 사암연합회 등에서 과감한 지원 체계를 갖춰야 한다. 봉축기간의 여러 행사들이야말로 온 불교계에 화합의 계기이고 포교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종교자유' 칼럼

류상태 목사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위험 무릅쓰고 제자의 종교적 고민과 함께한 스승

2004년 대광고 강의석 군 사건의 본질은 종교 강요로 인한 인간의 행복추구권, 특히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교육현장을 고발한 것으로, 수십 년 동안 시한폭탄 같이 잠재해 있었을 뿐 언제든 터질 것으로 예견된 사건이었다. 한 고등학생의 엄청난 희생에 의해 그동안 숨겨져 왔던 학교 내 종교인권이 사회 이슈화되기는 했지만, 자신의 직장과 신분까지 내던지면서까지 제자를 감싸 안고 보호하려 했던 스승이 없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 생각되는 한 분을 잊을 수 없다. 바로 사건 당시의 대광고 교목실장 류상태 목사다.

류 목사는 개인의 이익보다 기독교와 사회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양심적인 지성인이요, 용기 있는 실천가였다. 성실한 교사이자 성직자였던 그가 99 마리의 양보다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 돌보기로 하면서 거대한 종교권력과 맞서서 개혁에 나서는 험난한 길을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기독교에 대한 애정과 대광고에 대한 신뢰가 누구보다 깊었던 그였기에 보수 종교집단의 잘못된 방향을 안타까워했고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강 군 사건의 전 과정을 현장에서 함께 겪어내며 '의식개혁 없이 기독교가 과연 예수님의 근본정신을 이 사회에 펼쳐낼 수 있을 것인가' 깊은 고민을 했던 것이다.

예배 선택권에 대해서 류 목사는 "선교의 적극성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교단과 교회전체의 이해와 양해 없이는 학교장 단독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며 학교의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기독교계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강 군이 퇴학 처리되었을 때도 그는 "명백히 헌법 정신을 위배한 것이며 대광고의 설립 이념과 목적을 오히려 정면으로 거스르는 비교육적 · 반종교적 처사로서 예수님을 다시 한 번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고까지 개탄하였다.

한편 강 군이 한참 단식 중이던 2004년 10월 대광학원 이철신 이사장과 류상태 목사 간 주고받은 공방은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그 자체로 기억될 만한 유명한 사건이었다. 학교 법인 측은 류 목사에게 보낸 '경고의 말씀'에서 '목사이며 종교교사로서 직무 수행에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엄중히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류 목사는 "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 생각되어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과 같이 답을 하였다.

첫째, 학생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교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아무리 기독교 학교라도 학교는 학생의 전인격적 성장을 돕는 교육기관이지 교회가 아니다. 학생을 특정종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박했다.



대광고 前 교목실장 류상태 목사는 '학교입장'의 반대편에 섰다가 직위해제됐다.

둘째, '기독교 선교활동에 해를 끼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제가 선교활동에 해를 끼쳤는지, 대광고의 완고한 교리적 신앙이 기독교의 참다운 선교활동을 방해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고, "서구 신학에서는 이미 논의가 끝난 낡은 교리적 신앙관으로, 어찌 21세기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인류 사랑의 정신이 그토록 배타적인 것인지, 인류 문화의 찬란한 금자탑을 쌓은 다른 훌륭한 종교 전통들을 모조리 배격하고 오로지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셋째, '쓸데없는 분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국 개신교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목사로서, 잘못 가고 있다고 판단되는 한국 주류 개신교의 행태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 천만 성도들을 속이는 것이며 어린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류 목사는 학교 방침과 정반대의 입장에 섰다는 이유로 교목실장직에서 직위해제 되었음은 물론, 스스로 1985년 자신이 목사 안수를 받았던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 목사직을 반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10월 27일 아예 교사직마저 그만둬 14년간의 교목생활을 정리함으로써 학교 내 종교자유의 문제를 전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장본이기도 하다. 교단을 떠난 그는 학교 앞에서 노점상도 해보고 평신도 법인인 '새길기독문화원'에서 사무국장직을 지내기도 했지만, '종교'라는 울타리마저 류상태라는 '자유인'을 가둘 수 없었는지 최근에는 내면의 세계를 정리하며 글쓰는 일에만 몰두하며 지낸다고 한다.

어느 시대나 선각자는 자신을 던져 양심의 소리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고, 아직 각성되지 않은 당시에는 항상 오해와 저항이 따르게 되어 있다. 흐린 물을 맑히는 데는 맑은 물이 넘치게 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종교자유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는 프랑스 폴 발레리의 말이 새삼스럽게 귓가에서 맴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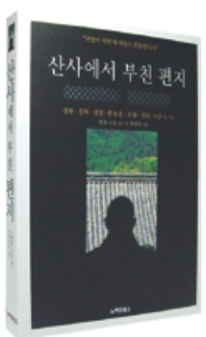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환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 신 환(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한의원의 윤량원장은 수십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친숙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환(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환(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한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환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한의원 상담문의 080-598-9832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 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속독 · 한자 · 독서(논술)
강사과정모집
창업, 취업, 보람찬 교육자의 길
교육도 품격이 있습니다
◆ 속독 · 한자 · 독서(논술) 교육을 한꺼번에 습득
◆ 효과가 검정된 발명특허원 획기적인 영재교육
◆ 전문교수법 완료, 초보자도 능력있는 강사 될 수 있음
◆ 각 학교 특기적성교육, 공부방, 교습소, 학원 등 강사 절대 부족
◆ 등록기간 : 2007년 5월 23일부터 선착순 50명
◆ 교육기간 : 일요일반 – 6월 24일~ 9월 2일 오후 4시~7시(주1회, 11주)
월요일반 – 6월 25일~ 9월 3일(주1회, 11주) 아침반-10시~12시, 저녁반-7시~9시
◆ 수 강 료 : 60만원 ◆ 지원자격 : 본 교육에 관심 있는 분
◆ 입금안내 : 신한은행 308-01-179614 (경기대 사회교육원)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 (02)390-5260~2
문의 : 담당교수 016-595-1137
부산 · 영남지역 교육
동아대 사회교육원 ☎ (051)240-8452~6
문의 : 담당교수연구실(051)243-1137, 016-595-1137
(교육일 : 금요일반, 토요일반)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 특강 안내
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古典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格局과 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五行의 변화법칙일뿐 格局과 用神을 몰라도 정확하게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著者 역시 30여년간 命理學을 연구하였으나 해답을 얻지 못했다. 太極四柱는 命理學을 보완한 것이다. 古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렵고 오판과 실수가 많지만, 太極四柱는 감정이 정확하고 논리가 정연하므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다. 初步에서 最高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로서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난다.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독학(獨學)으로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더욱이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실제 감정하므로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命理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임을 스스로 인정할 것이다. 이번에 발간한 增補 太極四柱는 前日에 著者가 출간한 太極四柱를 획기적으로 수정, 보완(修正, 補完)한 것이다. (안내서 무료배부)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강 사 : 孫中山 會長 (74세) 太極四柱 著者
◆ 테이프 16개와 敎材代 포함 : 20만원(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예금주 : 손선영)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053)324-2468 / 053)326-4585
(080-322-4684)

산사에서 부친 편지



명정스님 옮김, 정성욱 엮음/신국판/
331쪽/13,500원
노마드북스

역대 큰스님들이 수행 중에 주고받은 130여 편의 주옥같은 삶의 화두들!

이 책은 통도사 극락선원의 선원장 명정 스님이 본인의 스승이었던 경봉 스님이 남긴 유품 중 50여 명의 고승들이 한자로 쓴 130여 통의 편지를 현대어로 옮긴 것이다. 17살에 출가한 이후 43년 동안이나 경봉 스님을 스승으로 모셨던 명정 스님은 이 책을 통해 주옥같은 화두가 담긴 편지들을 세상에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 실린 편지들 속에는 경봉, 경허, 성철, 한용운, 효봉, 청담 스님 등 우리나라 큰스님들이 주고받은 선문답이 그대로 수록되어 있어 독자들은 불가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의 생생한 선문답의 현장을 엿볼 수 있다.



구성 그림 이범기/
4×6배변형판/320쪽/9,600원

글 양태석 그림 이범기/
4×6변형판/255쪽/6,000원

부처님이 들려주는 108가지 이야기

거부하는 용기를 가져라,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라, 누구에게나 친절하라, 즐거움이 있으면 괴로움도 있다, 망상을 떨쳐 버려라, 참다운 자신을 발견하라, 자신에게 더 엄하라, 자기가 주인임을 잊지 말라, 남을 생각하고 인정하라 등 108가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았다.

석가모니

이 책 <석가모니>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화로 꾸민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의 일생과 가르침을 통해, 현재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보고 참되고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서출판 능인

밀리언셀러 《화》의 저자 틱낫한 스님의 2006년 신작

prayer 기도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힘

기도는 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기도는 우주가 인간에게 선사하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다.



틱낫한 지음/김은희 옮김/9,000원

출판의 名家 명진출판

금강경과 마음공부



생활속에서 인류 정신사의 최고 정점인 금강경을 만나는 시간!
삶과 인생에 대한 의문을 가슴이 뻥 뚫리도록 명쾌하게 풀어주는 깊디 깊은 지혜!

성지 순례 길에 담아 온 아름다운 올컬러 사진까지 한권에담았습니다.

법상 글 사진/신국판(양장)/600쪽/25,000원 **무한**



봉 축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서울 종로구 안국동
02)737-0695

지면에 나온 출판연합서적 구입시 사은품을 드립니다.

- 2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TAPE (총 100개)
- 3만원이상 구매고객 : 설선대법회 법문 CD (총 100개)
- 10만원이상 구매고객 : 빛고을 불교아카데미 테입세트 (총 50세트)



불기2551년 부처님오신날
책방여시아문 기념이벤트

마음비움에 대한 사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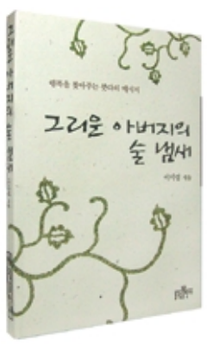
마음을 비우지 않고 채움이란 없다.

한국불교에 보내는 쓴소리, 『마음비움에 대한 사색』. 저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낀 생각을 90여 편의 칼럼으로 정리한 삶의 흔적이자 미래를 위한 기록이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신문이나 잡지 등에 발표한 컬럼을 수록한 것으로, 한국불교의 모든 출가자에게 보내는 쓴소리를 담고 있다. 또한 재가자와 일반인에게는 수행에 필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가져다준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던지는 메시지다.

마성지음/신국판/365쪽/12,000원
민족사

그리운 아버지의 술 냄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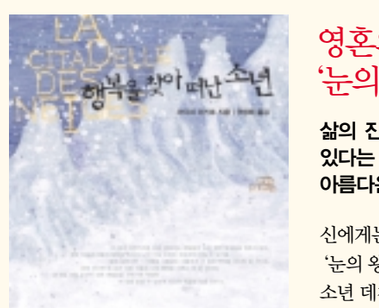


행복을 찾아주는 붓다의 메세지

이책의 저자는 경전 읽는 일을 꾸준하게 해온 학자 보살로서, 미처 그것을 읽지 못하는 대중들에게 보석 같은 부처님의 말씀 한 마디 한마디를 들려주고, 거기에 절실한 해석의 덕담까지 곁들여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장 한장 읽어가면서, 이 책의 지은이가, 달도 별도 가로등도 없는 깜깜한 밤의 울퉁불퉁한 골목길을 앞장서서 가면서, 초롱불을 비쳐주며 행복이라는 집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당신이 이 책을 읽으신다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말로 이 책의 내용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 한승원(소설가)

이미령 지음/4×6판/232쪽/7,000원
불광출판부



영혼의 키를 키우려 '눈의 왕국'으로 떠난 소년

삶의 진리는 '자비와 연민의 실천'에 있다는 티베트 불교의 가르침을 담은 아름다운 이야기

신에게는 가깝지만 속세와는 멀리 떨어진 '눈의 왕국.' 그곳에 도착한 부탄의 평범한 소년 데첸은 스승의 가르침과 명상을 통해 삶의 궁극적 비밀을 깨닫게 된다.

마티외 리카르 지음, 권명희 옮김 | 152쪽 | 9,000원

www.isamtoh.com 샘터

마음속 부처를 찾아 떠나는 단 한 번의 용기 있는 여행



속세의 인연을 버리고 산문에 든 우리 시대 대표 스님들의 인생 사연과 고된 구도의 여정 끝에 얻는 삶의 지혜를 풀어낸다.

우리 시대 고승 18人의 출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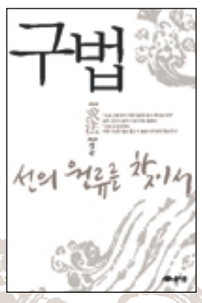
만봉 스님, 지종 스님, 성수 스님, 월서 스님, 현해 스님, 일면 스님, 운산 스님, 원경 스님, 지선 스님, 청화 스님, 혜자 스님, 효림 스님, 종림 스님, 원담 스님, 동희 스님, 본각 스님, 탁연 스님, 혜조 스님

유응오 엮음 | 240쪽 | 9,000원

www.isamtoh.com 샘터

구법

선의 원류를 찾아서



求法 정운

"스님, 인생에서 가장 다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조주 선사가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다.
"오줌 좀 눠야겠다.
이런 사소한 일도 몸소 이 늙은이가 해야 하는구나."

솔바람 152×224cm 올컬러 | 값 18,500원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마 음 이 · 행 복 해 지 는 · 선 이 야 기

청소년권장도서

청소년 권장도서로 선정되었습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여정을 다룬 책!
불교의 기본 가르침인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을 웃음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와 아름다운 삽화에 담았습니다.

솔바람 영리 브뤼넬 지음 · 크리스티앙 루 그림 | 임희근 옮김
190×190cm 올컬러 | 값 12,000원

내 친구 까까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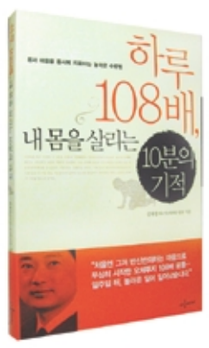
이번 부처님 오신 날에는 가까운 절집을 찾아가 우리 사찰의 아름다움을 느껴 보는 건 어떨까요?

이책을 통하여 우리 절집의 아름다운 모습, 부처님 오신 날의 연등 행사, 그리고 절집 곳곳에서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에 대하여 새로운 눈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은 불교의 역사와 문화를 딱딱하게 일깨워 주는 책이 아닙니다.

동자승 광덕이와 유치원생 민이의 만남과 우정을 이야기하는 따뜻한 책입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절집(불교)의 아름다운 정신까지 자연스럽게 보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감동적인 그림책입니다.

임정진 글, 윤정주 그림/260×275/
양장 / 40쪽 / 8,500원
시공사

하루 108배, 내 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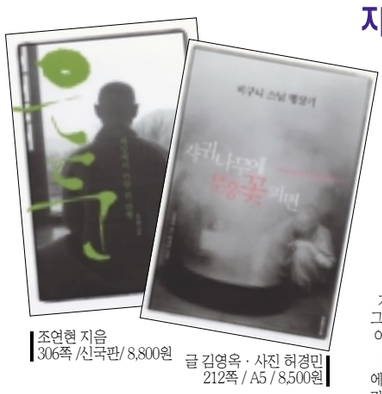


SBS 스페셜 0.2평의 기적, 절하는 사람들 에서 다루어진 기적의 수행법

"죽는 날까지 건강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고통스러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게 생활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108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김재성지음/신국판(양장)/ 260쪽/값10,000원
아름미디어

자귀나무에 분홍 꽃 피면



한 생각 뒤집어진 뒤에 누린 삶…… "그곳은 대체 어디입니까?

경학과 율력의 조화를 이루어가며 불법의 즐거움을 누리고 펴가는 비구니 스님들의 이야기. 기록이 되지 않으면 전설이 되고 말 일, 그러나 기록이 되면 역사가 되는 일.

세상에서 가장 먼 만행 **은둔**

은둔하며 깨달음을 얻은 33인의 선사들 이야기

가르침이 넘치는 세상이다.
그러나 정작 우리를 인도하는 나침반과 손가락은 어디에 있는가?

날을 밝히고서 자신의 자취를 감추어버린 빛이기에, 대지의 만물을 기르는 데 스며들고서 자신은 사라져버린 비이기에. 자신에겐 추상같되 남에겐 훈풍이 되었던, 이 시대의 마음의 스승들을 찾아서……

조연현 지음
306쪽 /신국판/ 8,800원

글 김영욱 · 사진 허경민
212쪽 / A5 / 8,500원

오래된미래

바랑 속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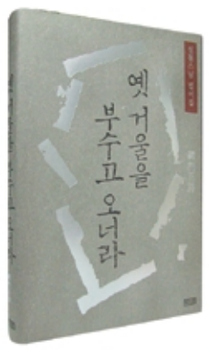


동학사 강원 비구니 스님들이 은근슬쩍 풀어놓는 마음자리와 출가 이야기

구법의 길을 향한 출가와 강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측불허의 에피소드들, 수행의 동반자가 된 도반 이야기와 출가 뒤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애틋함, 은사스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 등이 비구니 스님들 특유의 감성으로 담백하고 풋풋하게 그려져 있다.

동학사 편집실/ 국판 /240쪽 / 9,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禪門正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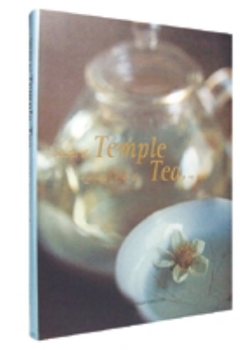
출간된 지 25년 만에 새롭게 만나는 성철 스님의 법어집, 〈선문정로〉!

한국불교계의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성철 스님의 대표작,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국불교계는 돈점(頓漸) 논쟁에 휩싸였다. 돈점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저자가 1981년 출간한 <선문정로>로, '돈오점수(頓悟漸修)'에 대한 비판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옛 거울을 부수고 오너라』 개정판』에서는 현대인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문장 해석 등을 첨가했으며, 한자는 괄호 속에 넣었습니다. 또한 저자 성철 스님이 1983년부터 <선문정로>를 교재로 해인사에서 강설한 내용을 추가하 여 이해를 도와줍니다. 원문 출처도 그대로 옮겨 놓았습니다.

성철스님 지음/신국판/424쪽/10,000원
장경각

산사에서 만든 차



우리나라 산사의 차 문화를 소개한 실용서.

이 책은 저자가 3년에 걸쳐 우리나라 사계 속의 산사와 각기 다른 계절별로 스님들의 차 만들기 비법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녹차와 꽃차, 잎차, 열매차 등 다양한 차들을 칼라 사진과 함께 실어 이해하기 쉽도록 했다.

**차 맛을 느껴가는 것,
알아간다는 것은 수행이다.
차와 명상은,
같은 맛(선다일미)이란 뜻이다.**

이정애 지음/4×6배판 양장/248쪽/33,000원
정리출판사